

제70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심화 해설

정답표

1	2	3	4	5
③	③	②	①	②
6	7	8	9	10
③	④	③	④	③
11	12	13	14	15
④	③	①	④	④
16	17	18	19	20
③	④	①	③	③
21	22	23	24	25
①	⑤	②	②	②
26	27	28	29	30
④	①	②	①	③
31	32	33	34	35
①	⑤	⑤	①	③
36	37	38	39	40
③	⑤	①	⑤	⑤
41	42	43	44	45
⑤	⑤	③	②	②
46	47	48	49	50
④	④	⑤	②	②

<1번 오답 해설>

④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한 것은 구석기 시대의 일이다.

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사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한 것은 신석기 시대의 일이다.

***가락바퀴: 실을 감는 도구인 '가락'을 끼워 사용했기 때문에 가락바퀴라고 부르며, 가락의 다른 이름인 방추를 붙여 '방추차'라고도 한다. 이로써 원시적 수공업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청동기 시대까지 사용).

01 -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

1.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 ②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역하였다.
- ③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 ④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 ⑤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사용하여 옷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정답> ③

'<오늘의 한국사 퀴즈> 매일 문제 풀고 한국사 박사 되자!'는 제목 아래 '사유 재산과 계급이 발생한 (가)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을 고르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사진으로 구석기 시대의 뿔집, 주먹도끼, 신석기 시대의 토기인 빗살무늬 토기,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청동기, 신석기 시대의 갈돌과 갈판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시대'는 청동기 시대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지배층의 무덤인) 고인돌을 축조한 것은 청동기 시대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인 것은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②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 화폐로 교역한 것 역시 초기 철기 시대의 일이다.

*오수전(五銖錢): '오수(五銖)'의 두 글자가 표시된 중국의 화폐. 한 무제 때 처음 주조되어 위진 남북조, 수 대에 걸쳐 사용되었다(초기에는 동전이었던가 후대에는 철전도 주조).

**화천(貨泉): 중국 왕망 대(기원후 8~23) 신나라 때부터 제조된 화폐(동전)

02 - 초기 국가, 동예

2.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학습 내용 정리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

1. 경제 활동

나라	사료에 나타난 특징
부여	관직명에 가축 이름 사용, 명마·담비 가축 생산
(가)	삼베·명주 생산, 특산물: 단궁·과하마·반어피
삼한	벼농사 발달, 철이 많아 낙랑·왜에 수출

- ①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 ②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 ③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 ④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⑤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정답> ③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여러 나라'라는 제목으로 부여의 경제 활동으로, '관직명에 가축 이름 사용, 명마·담비 가축 생산'이, 이어 (가)의 경제 활동으로, '삼베·명주 생산, 특산물로 단궁·과하마·반어피'가, 삼한의 경제 활동으로 '벼농사 발달, 철이 많아 낙랑·왜에 수출'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나라'는 초기 국가, 동예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동예는 매년 10월 무천(舞天)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오답 해설>

- ① 신지,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삼한이다.
- ② 혼인 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던 나라는 초기 국가, 옥저이다.
- ④ 여러 가(加)들이 각각 사출도를 주관한 나라는 초기 국가, 부여이다.
- ⑤ 제가 회의에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한 나라는 고구려이다. 제가 회의는 일종의 귀족 회의이다.

03 - 나제 동맹 강화

3.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왕이 문주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고 밝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도림]의 말을 믿어 이 지경이 되었다. …… 나는 마땅히 사직에서 죽겠지만, 내가 이곳에서 함께 죽는 것은 이로울 게 없다. 어찌 난을 피하여 나라의 계통을 잊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 고구려의 대로 제우·재증걸루·고이만년 등이 북성을 공격하여 7일 만에 빼앗았다. 이동하여 남성을 공격하니 성 안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왕이 성을 나와 도망하자, 고구려 장수 재증걸루 등이 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에 그 얼굴을 향해 세 번 침을 뱉고는 죄를 나열한 다음 포박하여 아차성 아래로 보내 죽였다.

- ①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 ② 동성왕이 나제 동맹을 강화하였다.
- ③ 고국원왕이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 전사하였다.
- ④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북위에 국서를 보냈다.
- ⑤ 신라가 왜를 격퇴하기 위해 고구려에 군사를 청하였다.

정답> ②

'왕이 문주에게 일러 말하기를, 내가 어리석고 밝지 못하여 간사한 사람[도림]의 말을 믿어 이 지경이 되었다. …… 나는 마땅히 사직에서 죽겠지만, 내가 이곳에서 함께 죽는 것은 이로울 게 없다. 어찌 난을 피하여 나라의 계통을 잊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고구려의 대로 제우·재증걸루·고이만년 등이 북성을 공격하여 7일 만에 빼앗았다. 이동하여 남성을 공격하니 성 안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 왕이 성을 나와 도망하자, 고구려 장수 재증걸루 등이 왕을 보고 말에서 내려 절한 다음에 그 얼굴을 향해 세 번 침을 뱉고는 죄를 나열한 다음 포박하여 아차성 아래로 보내 죽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삼국사기』 권 제25 백제본기 제3 '한성이 함락되고 개로왕이 살해되다'(475년 9월)). 고구려 장수왕(재위 413-491, 제20대)의 공격으로 백제의 수도 한성(위례성)이 함락되고 백제의 제21대 왕인 개로왕(재위 455-475)이 전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475, 고구려 장수왕 63/백제 개로왕 21). 개로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주왕(재위 475-477, 제22대)은 지금의 충남 공주 지역인 웅진으로의 천도를 단행하였다(웅진 천도)(475~538, 웅진 시대 개막).

백제의 동성왕(재위 479-501, 제24대)은 나제 동맹을 강화한 혼인(결혼) 동맹*을 맺은 것은 493년(백제 동성왕 15/신라 소지왕[소지마립간] 15)의 일이다. 백제와 신라가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은 장수왕이 백제의 도움인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는 등(475, 장수왕 63) 5세기 후반 들어 백제와 신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제2차 나제 동맹이다. 433년에 백제의 비유왕과 신라의 눌지왕[눌지마립간]가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맞서 처음 나제 동맹을 맺었다(백제 비유왕 7/신라 눌지왕[눌지마립간] 17).

오답 해설>

- ①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한 것은 장수왕 15년인 427년의 일이다(평양 천도).
- ③ 고국원왕이 (평양성에서) 근초고왕의 공격을 받아 전사한 것은 371년의 일이다(고구려 고국원왕 41/백제 근초고왕 26).
- ④ 백제가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북위(386-534)에 국서를 보낸 것은 백제 개로왕 18년인 472년의 일이다. 이때 개로왕은 북위에 고구려의 침공을 요청하였다.
- ⑤ 신라가 왜를 격퇴하기 위해 고구려에 군사를 청한 것은 400년의 일이다(신라 내물왕[내물마립간] 45/고구려 광개토 대왕 10). 이때 광개토 대왕은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냈다.

04 - 고구려 소수림왕 대의 사실

4. (가)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승려 순도를 통해 불교를 수용하였다.
- ②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 ③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 ⑤ 이문진이 유기를 간추린 신집 5권을 편찬하였다.

정답> ①

'스스로 탐구하는 역사 수업'이라는 제목 아래 '고구려 제17대 왕으로 즉위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한 (가)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올려 주세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정치 분야에 '울령을 반포하였어요', 외교 분야에서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여 교류하였어요', 사회 분야에서 '태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어요'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왕'은 고구려의 제17대 왕인 소수림왕(재위 371-384)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울령을 반포한 것은 재위 3년인 373년, 전진에 사신을 파견하여 교류한 것은 즉위 초부터로 추정되며(전왕인 고국원왕 대부터 우호 관계 수립, 불교 공인 과정을 통해 추정). 태학을 설립한 것은 재위 2년인 372년의 일이다. 소수림왕은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기틀을 마련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다.

소수림왕 2년인 372년 전진 왕 부견(재위 357-385, 제3대)이 보낸 승려 순도(?~?)가 가져온 불상과 경문을 받아들여 삼국 최초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오답 해설>

② 낙랑군을 축출하여 영토를 확장한 것은 미천왕 14년인 313년의 일이다(미천왕(재위 300-331), 제15대). 2년 전인 311년(미천왕 12)에 (압록강 하류 지역인) 서안평을 점령하였으며, 이듬해인 314년(미천왕 15)에는 대방군까지 정벌하였다.

③ 영락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왕은 광개토 대왕(재위 391-412, 제19대)이다. 광개토 대왕은 즉위 직후부터 영락(永樂)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391~412). 영락은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이기도 하다.

*연호(年號)란 중국에서 비롯된 군주 국가의 기년법(紀年法)(과거의 어떤 해를 기점으로 해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군주의 치세(治世)에 붙이는 칭호이다. 원호(元號), 다년호(大年號)라고도 하며, 중국 한(漢) 무제(武帝) 때의 건원(建元)이 최초의 연호이다. 원칙적으로 연호는 황제만이 사용하고, 제후왕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호가 있다 함은 그 나라의 '독자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④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친 것은 고구려 영양왕 23년인 612년의 일이다(살수 대전)[영양왕(재위 590-618), 제26대].

⑤ (태학박사) 이문진이 『유기(留記)』를 간추린 『신집(新集)』 5권을 편찬한 것은 고구려 영양왕 11년인 600년의 일이다.

05 - 도교

5. 강연자의 질문에 대한 청중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간경도감에서 경전이 간행되었습니다.
- ② 연개소문이 당에 도사 파견을 요청하였습니다.
- ③ 과거 시험의 교재로 사서집주가 채택되었습니다.
- ④ 범일이 9산 선문 중 하나인 사굴산문을 개창하였습니다.
- ⑤ 주요 경전의 이름이 새겨진 임신서기석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답> ②

'화면에 보이는 고구려의 사신도와 백제 산수무늬 벽돌은 신선 사상을 기반으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이 종교의 내용이 잘 표현된 문화유산입니다. 이 종교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강서대묘 사신도 중 현무도와 산수무늬 벽돌이 사진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종교는 도교(道敎)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연개소문(?~665)은 642년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도교를 진흥시키고자 당에 요청해 도사(道士) 숙달(叔達) 등 8명을 초빙하였다(『삼국사기』 권제21 고구려본기 제9 '연개소문의 요청으로 당에 도교를 요청하다' (보장왕 2년 643년 2월)). 연개소문이 도교 진흥책을 편 것은 당시 유행하던 도참설을 배경하고 도교적 전제 정치를 실시하려고 했기 때문이며, 불교와 친밀한 기존 세력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오답 해설>

①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간경도감이 설치된 것은 세조 7년인 1461년의 일이다. 성종 2년인 1471년 폐지될 때까지 11년 동안 존속하면서 다수의 불경을 간행하였다(연해하여 간행하는 것이 주목적).

③ 『사서집주(四書集注)』는 성리학을 집대성한 남송의 유학자 주희(1130~1200)가 사서*(『논어』, 『맹자』, 『대학』, 『중용』)를 주석한 책이다(4책). 이 중 『대학』과 『중용』은 원래 『예기』의 한 편명들이었지만 주희가 새롭게 주석하여 경전으로 정립한 것이다(따라서 정확한 책의 명칭은 『사서장구집주』). 고려 시대 충선왕(재위 1308-1313, 제26대)의 건의로 1314년 원에 과거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때 주희의 『사서집주』가 과거 시험의 주요 과목으로 채택되었고(원 인종 3), 이후 고려와 조선에서도 자연스럽게 과거 시험의 교재로 수용하였다(성리학 수용).

*1182년(남송 순희 9/고려 명종 12)에 사서(四書)라는 이름으로 처음 정립되었다.

④ 통효대사 범일(810~889)이 명주(지금의 강원도 강릉) 굴산사에서 9산 선문[불교의 선종] 중 하나인 사굴산문을 개창한 것은 문성왕 13년인 851년의 일이다(신라 문성왕(재위 839-857), 제46대).

⑤ 주요 경전의 이름이 새겨진 임신서기석이 만들어진 것은 552년(진흥왕 13) 또는 612년(진평왕 34) 중 하나로 추정하고 있다. 임신서기석을 통해 신라에서 청년들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임신서기석에는 '하늘 앞에 맹세한다. 지금부터 3년 이후까지 충도(忠道)를 지키고 잘못이 없기를 맹세한다. 만약 이 서약을 어기면 하늘로부터 큰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06 - 화쟁국사 원효


6. (가)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우리 역사상 불교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승려를 가리는 이번 투표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

■ 주요 활동

-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 등 저술
-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 주장



기호 ○번 (가)

- ①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②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 ③ 무애가를 지어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 ④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하였다.
- ⑤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하였다.

정답> ③

'일체유심조/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제목 아래 '우리 역사상 불교 발전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승려를 가리는 이번 투표에서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립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주요 활동으로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 등 저술', '일심 사상과 화쟁 사상 주장'이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승려'는 통일 신라 시대의 고승, 화쟁국사 원효(617~680)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원효는 무애가를 지어 정도 신앙을 전파함으로써 불교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구법 순례기인 『왕오천축국전』을 지은 승려는 신라의 고승, 혜초(704~787)이다(727, 성덕왕 26).
- ② 황룡사 구층 목탑의 건립을 건의한 승려는 신라의 대국통, 자장(590~658)이다(643, 선덕 여왕 12).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된 것은 선덕 여왕 15년인 646년의 일이다.
- ④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속 5계를 제시한 승려는 신라의 고승 원광(555~638)이다(601, 진평왕 23). 원광은 또 왕명으로 수에 군사를 청하는 「결사표(乞師表)」를 지은 인물이기도 하다(608, 진평왕 30). 「결사표」는 수[양제](제위 604-618, 제2대)에게 사신을 통해 3년 뒤인 611년에 보내졌다(「결사표」의 원문은 현재 전하지 않음).
- ⑤ 「화엄일승법계도」를 지어 화엄 사상을 정리한 승려는 원교국사 의상(625-702)이다(668, 문무왕 8).

07 - 발해

7.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신라고기(新羅古記)』에 이르기를 “고(구)려의 옛 장수 조영의 성은 대씨(大氏)니 남은 군사를 모아 태백산 남쪽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가)(이)라고 하였다.” …… 『지장도(指掌圖)』에 보면 (가)은/는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 밖에 있다.”라고 하였다.

- ① 군사 조직으로 9서당 10정을 편성하였다.
- ② 정사암에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였다.
- ③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갖추었다.
- ④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마련하였다.
- ⑤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다.

정답> ④

『(신라고기(新羅古記)』에 이르기를 고(구)려의 옛 장수 조영의 성은 대씨(大氏)니 남은 군사를 모아 태백산 남쪽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 이름을 (가)(이)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 『지장도(指掌圖)』에 보면 (가)은/는 만리장성 동북쪽 모서리 밖에 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조영'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 주어진 자료 속 '(가) 국가'는 발해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698~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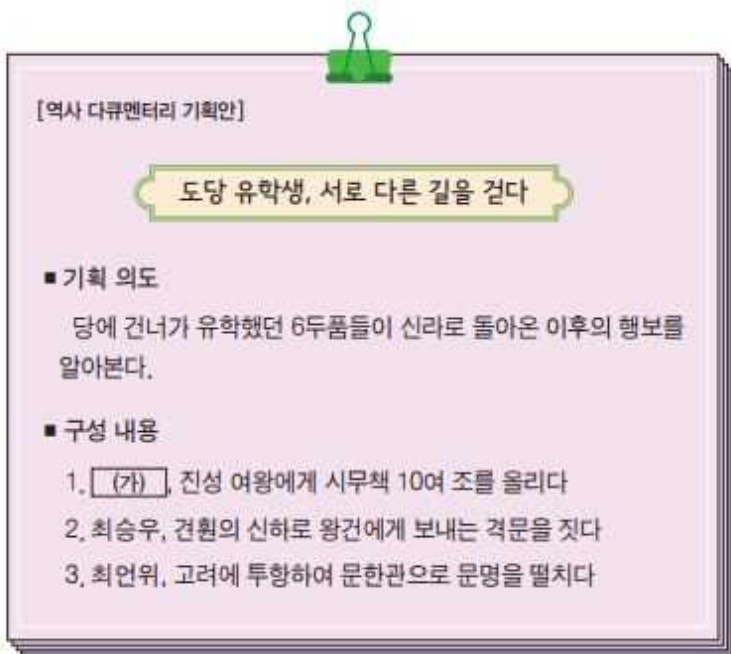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마련한 것은 발해의 제10대 왕인 선왕 대(재위 818-830, 대인수)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군사 조직으로 9서당 10정을 편성한 국가는 (통일) 신라이다 [각 687(신라 신문왕 7)/685(신문왕 5)].
- ② 정사암에 모여 국가 중대사를 논의한 국가는 백제이다(천정대와 호암사지에서 정사암 회의 열림).
- ③ (최고 중앙 관서인)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 기구를 갖춘 국가는 후고구려이다(904)
- ⑤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한 국가는 신라이다. 상수리 제도는 신라의 중앙 정부가 지방 세력을 통제[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지방 세력의 자제들 중 한 명을 일종의 볼모로 중앙에 머물게 한 제도이다(5세기 이전부터 실시 추정). 고려의 기인 제도, 조선의 경저리 제도로 이어졌다.

08 - 고운 최치원

8.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하였다.
- ② 외교 문서인 청방인문표를 작성하였다.
- ③ 격황소서를 지어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쳤다.
- ④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밀경소를 저술하였다.
- ⑤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화왕계를 저술하였다.

정답> ③

'도당 유학생, 서로 다른 길을 걷다'는 제목 아래 기획 의도로 '당에 건너가 유학했던 6두품들이 신라에 돌아온 이후의 행보를 알아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구성 내용으로 '1. (가), 진성 여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올리다', '2. 최승우, 견훤의 신하로 왕건에게 보내는 격문을 짓다', '3. 최언위, 고려에 투항하여 문한관으로 문명을 떨치다'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당에서 귀국한 후 개혁 방안을 담은 시무책 10여 조를 진성 여왕에게 올린 고운 최치원(857~?)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894, 진성 여왕 8).

최치원 당의 빈공과에 합격한 뒤에 「격황소서(檄黃巢書)」, 즉 황소를 격퇴하는 글(「토황소격문」)을 써서 문장가로서 이름을 떨친 것은 당 희종 광명 2년인 881년의 일이다(신라 헌강왕 7). 당 고변의 종사관으로 있을 때 민란인 황소의 난(875~884)이 일어나자 그 수괴인 황소(?~884)에게 항복을 권유하기 위하여 보내는 격문을 대필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향가 모음집인 『삼대목』을 편찬한 인물은 각간(角干) 위홍(魏弘)(?~888)과 대구화상(大矩和尚)(?~?)이다(888, 진성 여왕 2). 왕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② 외교 문서인 「청방인문표(淸放仁問表)」*, 「답설인귀서(答薛仁貴書)」* 등을 지은 인물은 신라의 유학자이자 문장가인 강수(?~692)이다.

*청방인문표는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이자 문무왕의 아우인 김인문(629~694)의 석방을 청하는 글이고, 답설인귀서는 671년(문무왕 11)에 지은 당의 행군총관 설인귀의 서신에 대한 답서이다. 당에 숙위 중이던 김인문이 옥에 갇힌 것은 고구려를 멸한 후 신라가 당군에 대항하여 군사를 발하자 당 고종이 화가 났기 때문이다(671년경으로 추정). 이후 당 고종은 청방인문표를 읽고 인문을 석방하였다(672년경으로 추정(신라가 9월에 사죄사 파견). 단지 표문뿐 아니라 두 차례의 침략이 실패하고, 신라가 천왕사를 짓고 당 황제의 만년 수명을 축원하는 법석을 연다는 보고, 김인문을 문무왕 견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속셈 등도 김인문의 석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삼국유사』).

<14쪽 25번 아래 추가 해설>

09 - 신라 원성왕 즉위

9.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3점]

각간 김경신이 해몽을 청하자 아찬 여삼은 “복두를 벗은 것은 위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이요, 소립을 쓴 것은 면류관을 쓸 징조이며, 12현금(絃琴)을 든 것은 12대손까지 왕위를 전한다는 조짐이며, 천관사 우물로 들어간 것은 궁궐로 들어갈 상서로운 조짐입니다.”라고 하였다. “위에 주원이 있는데 어찌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겠소?”라고 경신이 묻자, 아찬이 대답하기를 “청컨대 은밀히 북천신에게 제사 지내면 될 것입니다.”라고 하여 이에 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덕왕이 죽자, 나라 사람들이 김주원을 왕으로 받들어 궁중으로 맞아들이려 했다. 주원의 집은 북천 북쪽에 있었는데 홀연히 냇물이 불어나 건널 수가 없었다. 이에 경신이 먼저 궁궐로 들어가 왕위에 올랐다.

654	681	722	780	828	889
(가)	(나)	(다)	(라)	(마)	
무열왕 즉위	김흠돌의 난	정전 지급	혜공왕 피살	청해진 설치	원종과 애노의 난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④

'각간 김경신이 해몽을 청하자 아찬 여삼은 복두를 벗은 것은 위에 다른 사람이 없다는 뜻이요, 소립을 쓴 것은 면류관을 쓸 징조이며, 12현금(絃琴)을 든 것은 12대손까지 왕위를 전한다는 조짐이며, 천관사 우물로 들어간 것은 궁궐로 들어갈 상서로운 조짐입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위에 주원이 있는데 어찌 내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겠소'라고 경신이 묻자, 아찬이 대답하기를 청컨대 은밀히 북천신에게 제사 지내면 될 것입니다'라고 하여 이에 따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선덕왕이 죽자, 나라 사람들이 김주원을 왕으로 받들어 궁중으로 맞아들이려 했다. 주원의 집은 북천 북쪽에 있었는데 홀연히 냇물이 불어나 건널 수가 없었다. 이에 경신이 먼저 궁궐에 들어가 왕위에 올랐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삼국유사』 권 제2 기이 '각간 김경신이 꿈을 꾸고 아찬 여삼이 해몽하니 왕이 될 징조였다'). (이찬) 김경신은 이찬 김지정이 반역했을 때 상대등 김양상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을 진압한 적이 있다(780, 혜공왕 16). 이때 왕[혜공왕(재위 765-780), 제36대]과 왕비가 반란군에게 피살되었고 김양상이 왕위에 올라 신라의 제37대 왕인 선덕왕(재위 780-785)이 되었다(혜공왕 피살 이후부터 귀족들의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전개). 그리고 이후 785년에 선덕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여러 신하들이 회의를 한 후 왕의 조카이자 태종 무열왕의 6대손인 김주원(?~?)을 옹립하고자 하였지만, 주원의 집이 왕경에서 북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마침 큰비가 와서 알천의 물이 넘쳐 주원이 건너오지 못하자 여러 사람들의 뜻이 모아져 (내물마립간의 12대손인) 김경신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김경신이 바로 제38대 왕인 원성왕(재위 785-798)이다. 참고로 '알천'은 오늘날 경주 남산 서북 일대의 한 지명이다.

연표에서는 혜공왕이 피살된 780년에서 청해진이 철치된 828년(흥덕왕 3) 사이인 '(라) 시기'가 해당한다.

10 - 고려의 후삼국 통일

10.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점]

한국사 동영상 제작 계획안

다시 하나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룬다

○학년 ○반 ○모둠

■ 제작 의도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주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

■ 장면별 구성 내용

#1. 신승겸,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다

#2. 왕건,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물리치다

#3. 견훤, 금산사에서 탈출하여 고려에 귀순하다

#4. (가)

#5. 왕건, 일리천에서 신검의 군대에 승리하다

- ① 안승, 보덕국왕으로 책봉되다
- ② 궁예,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다
- ③ 경순왕 김부, 경주의 사심관이 되다
- ④ 윤충,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다
- ⑤ 흑치상지, 임존성에서 부흥군을 이끌다

정답> ③

'다시 하나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룬다'는 제목 아래 제작 의도로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주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살펴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장면별 구성 내용으로 '#1. 신승겸, 공산 전투에서 전사하다', '#2. 왕건,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을 물리치다', '#3. 견훤, 금산사에서 탈출하여 고려에 귀순하다', '#4. (가)', '#5. 왕건, 일리천에서 신검의 군대에 승리하다'가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고려의 김락(?~927)과 신승겸 장군(?~927)이 고려와 후백제 간에 벌어진 공산 전투에서 전사한 것은 927년의 일이다(927.9). 공산은 지금의 대구 팔공산 일대로, 이때 후백제군(견훤)이 고려군을 대파하였다. 고려의 왕건이 고창 전투에서 후백제군에게 승리한 것은 930년(고려 태조 13)의 일이다(930.1). 고창은 지금의 경북 안동이다. 후백제의 견훤(867~936)이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내분으로 금산사에 유폐되었다가 탈출한 후 고려 태조 왕건에게 귀부한 것은 935년 6월의 일이다(935.3-6). 왕건이 일리천에서 후백제의 신검(재위 935-936, 제2대)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친 것은 재위 19년인 936년 9월의 일이다(일리천 전투). 일리천은 지금의 경북 구미 지역이다.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 김부(재위 927-935, 제56대)가 고려에 귀부하여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것은 935년(태조 18)의 일이다(귀부한 것은 935년 11월, 정성공에 봉해지고 경주의 사심관으로 임명된 것은 935년 12월, 경주를 식읍으로 받음). 사심관이란 지방에 연고가 있는 중앙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정확하게는 감독하도록 임명한 특수 관직으로 고려가 지방 견제 정책의 일환으로 부여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안승(?~?)이 보덕국왕으로 책봉된 것은 신라 문무왕 14년인 674년의 일이다. 참고로 안승은 666년 신라에 항복한 연개소문(?~665)의 동생 연정토(?~?)의 아들이다.

<14쪽 25번 아래 추가 해설>

11 - 고려의 경제 상황

11. (가) 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1점]

이것은 (가) 시대에 다인철소에서 생산된 유물들입니다.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소에 대해 검색한 것을 말해 볼까요?

(가) 시대에는 가혹한 수탈에 맞서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가 일어나기도 하였어요.

국가 지정된 특정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던 소의 주민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 차별을 받았어요.

- ①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하였다.
- ② 풍흉에 따라 9등급으로 전세를 거두었다.
- ③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이 널리 재배되었다.
- ④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하였다.
- ⑤ 설점수세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하였다.

정답> ④

'이것은 (가) 시대에 다인철소에서 생산된 유물들입니다.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소에 대해 검색한 것을 말해 볼까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왼쪽 말풍선에 '국가가 지정된 특정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하였던 소의 주민들은 일반 군현민에 비해 차별을 받았어요'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가) 시대에는 가혹한 수탈에 맞서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가 일어나기도 하였어요'라는 대답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고려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가혹한 수탈에 맞서 봉기한 것은 고려 명종 6년인 1176년의 일이다(망이·망소이의 난 또는 공주 명학소의 난).

경시서**의 관리들이 시전의 상행위를 감독한 것은 고려 시대의 일이다.

*공주 명학소는 지금의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일대로 추정하고 있다. 탄방동(炭坊洞)이라는 현재의 지명이 숯방이·숯뎡이, 즉 숯을 굽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망이와 망소이를 비롯한 명학소민이 숯을 생산하는 하층의 신분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개경]의 시전을 감독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목종 대(재위 997-1009, 제7대)로 추정된다(경시서 자체는 그 이전에 설치되었을 것으로 추정). 그러다 고려 문종 대(재위 1046-1083, 제11대)에 이르러 경시서의 직제가 확대되었다. 이후 경시서는 조선 초에도 계속 존속되다가 세조 12년(1466)에 관제를 개혁할 때 평시서(平市署)로 개칭되었다.

오답 해설>

- ① 특산품으로 솔빈부의 말이 유명한 국가는 남북국 시대의 발해이다(솔빈부는 발해의 지방 행정 구역 중 하나).
- ② 풍흉에 따라 9등급을 전세를 거둔 것은 조선 세종 26년인 1444년의 일이다[공법(연분9등법)]. 그 해의 풍흉에 따라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차등(9등분) 과세하였다.
- ③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 작물이 널리 재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14쪽 25번 아래 추가 해설>

12 - 인물로 보는 고려 불교사

12.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한국사 학습 강좌〉

인물로 보는 고려 불교사

우리 학회에서는 고려 승려들의 활동을 통해 불교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강좌 주제 ■

제1강 균여	(가)
제2강 의천	(나)
제3강 지눌	(다)
제4강 요세	(라)
제5강 혜심	(마)

· 일시: 2024년 ○○월 ○○일 09:00~17:00
· 장소: □□ 박물관 대강당
· 주최: △△ 학회

- ① (가) -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 결사를 제창하다
- ② (나) -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다
- ③ (다) -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혜쌍수를 강조하다
- ④ (라) - 이론과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시하다
- ⑤ (마) - 보현십원가를 지어 불교 교리를 대중에게 전파하다

정답> ③

'인물로 보는 고려 불교사'라는 제목 아래 '우리 학회에서는 고려 승려들의 활동을 통해 불교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강좌 주제로, '제1강 균여, (가)', '제2강 의천, (나)', '제3강 지눌, (다)', '제4강 요세, (라)', '제5강 혜심, (마)'가 차례대로 제시되어 있다.

「권수정혜결사문」을 작성하여 정혜쌍수를 강조한 인물은 불일보 조국사 지눌(1158~1210)이다(1190, 고려 명종 20). 지눌은 「권수정혜결사문」에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을 것을 결의하였다. 먼저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행자들이 갖기 쉬운 의문을 제시하고 그에 답한 다음, 정혜결사를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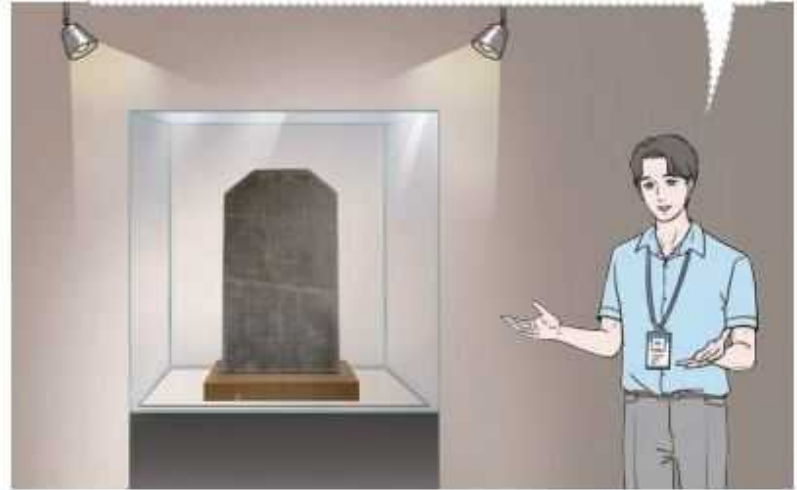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법화 신앙에 중점을 둔 백련 결사를 제창한 인물은 원묘국사 요세(1163~1245)이다.
- ② 심성의 도야를 강조한 유불 일치설을 주장한 인물은 진각국사 혜심(1178~1234)이다. 혜심은 또한 중국과 한국의 역대 선사들의 어록을 모은 공안집[화두집]인 『선문염송집』을 편찬하였다(1226, 고종 13). 참고로 혜심은 출가 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국자감의 태학에 입학한 유학도이기도 하였다.
- ④ 이론과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겸수를 제시한 인물은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이다.
- ⑤ (향가인) 「보현십원가」(11수)를 지어 불교 교리[화엄 사상]를 대중에게 전파한 인물은 원통대사 균여(923~973)이다(광종 대인 963년과 967년 사이에 지음).

13 - 고려 속종(별무반 창설)

13.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조카 현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가)의 넷째 딸인 복령 공주 왕씨 묘지명입니다. 여기에서는 복령 공주를 '천자의 딸'이라고 표현하여 국왕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가)은/는 개경 세력을 견제하고자 남경에 궁궐을 짓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는 등 왕권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 ① 여진 정벌을 위해 별무반을 창설하였다.
- ②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였다.
- ③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였다.
- ⑤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하였다.

정답> ①

'이것은 조카 현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가)의 넷째 딸인 복령 공주 왕씨 묘지명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기에서는 복령 공주를 천자의 딸이라고 표현하여 국왕의 권위를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가)은/는 개경 세력을 견제하고자 남경에 궁궐을 짓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를 발행하는 등 왕권 강화를 꾀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고려의 제15대 왕인 속종(재위 1095-1105)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현종(재위 1094-1095)은 숙부 계림공 희(속종)에게 사실상 강제로 왕위를 물려준 후 후궁에서 지내다가 14세로 요절하였다. 속종은 남경에 궁궐을 짓고 남경[한양]으로 천도하고자 하였으며*, 주전도감을 설치하여 해동통보 등의 화폐를 발행하였다[각 1097(속종 2)/1102(속종 7)]. 참고로 한양이 (양주목에서) 남경으로 승격된 것은 고려 문종 21년인 1067년의 일이다(유수관을 둬).

[윤관(1040~1111)의 건의로] 여진 정벌을 위해 별무반을 창설한 것은 속종 9년인 1104년의 일이다.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종 2년인 1107년에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 9성을 축조하였다.

*고려 속종 대 김위제(?~?)의 건의로 남경 건설이 추진되었다. 김위제는 도선의 풍수지리를 배운 술사(術士)로, 속종에게 남경(한양)으로 도읍을 옮기도록 청한 것이다. 이에 속종은 재위 4년인 1099년에 친히 남경에 행차하여 지세를 살폈고, 재위 6년인 1101년에는 남경개창도감을 두게 하였다. 하지만 결국 남경으로의 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답 해설>

- ②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관리[지방관]를 파견한 것은 고려 성종 2년인 983년의 일이다.
- ③ 광덕, 준풍 등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왕은 광종(재위 949-975, 제4대)이다.

<14쪽 25번 아래 추가 해설>

14 - 무신 정변

14. (가)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정동행성이 설치되는 배경을 살펴본다.
- ② 철령위 설치에 대한 최영의 대응을 검색한다.
- ③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한 인물을 찾아본다.
- ④ 서경유수 조위총이 반란을 일으킨 이유를 알아본다.
- ⑤ 이성계 등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는 과정을 조사한다.

정답> ④

'대한민국 방방곡곡 - 거제 둔덕기성 전경'이라는 제목 아래 '거제의 둔덕기성은 신라 시대에 축조되었고, 고려 시대에 성벽이 개축되어 축성법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학술적 가치가 큰 사적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정중부 등이 일으킨 (가)(으)로 폐위된 의종이 이곳에서 머물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후 김보당은 의종을 경주로 피신시켜 복위를 시도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사건'은 무신 정중부(1106~1179), 이의방(?~1174) 등에 의해 고려 의종 24년인 1170년에 발생한 무신 정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서경유수 조위총(?~1176)이 반란을 일으켜 정중부, 이의방 등 무신 정권을 타도하고자 한 것은 고려 명종 4년인 1174년의 일이다[~1176(명종 6)].

오답 해설>

- ①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된 것은 고려 충렬왕 6년인 1280년의 일이다. 정동행성의 정식 명칭은 '정동행중서성(征東行中書省)'으로, 여기서 '정동'은 일본 정벌을 뜻하고, '행중서성'은 중앙 정부 기관인 (원) 중서성의 지방 파견 기관을 뜻한다. 일본 원정 실패 이후에도 폐지되지 않고 남아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는 기구로 기능하였다.
- ② 고려 우왕 13년인 1387년 12월에 명 태조 주원장(재위 1368-1398)이 우왕(재위 1374~1388, 제32대)에게 국서를 보내 철령위 설치를 통보하였다(이른바 '명의 철령위 설치 주장'). 이에 반발한 우왕과 최영(1316~1388)이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다.
- ③ 칭제 건원과 금국 정벌을 주장한 인물은 묘청(?~1135)이다. 고려 인종 13년인 1135년에 서경 천도를 주장하며 반란을 일으키고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개, 그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 하였다(묘청의 난)(서경 천도 운동).
- ⑤ 이성계(1335~1408)는 흥건적과 왜구를 격파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1380년(우왕 6) 9월 (전라도 지리산 근방인) 황산에서 왜구를 물리친 일은 이성계가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황산 대첩).

15 - 처인성 전투

15.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최우가 녹전거(祿轉車) 100여 대를 빼앗아 집안의 재물을 강화도로 옮기니, 수도가 흥흥하였다. …… 또 사자(使者)를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백성을 산성과 섬으로 옮겼다.

(나) 김방경과 혼도(忻都), 홍차구, 왕희, 왕용 등이 3군을 거느리고 진도를 토벌하여 크게 격파하고, 승화후 왕운을 죽였다. 김통정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탐라로 도망하여 들어갔다.

- ① 양규가 광주성을 급습하여 탈환하였다.
- ② 최무선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하였다.
- ③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 국왕을 폐위하였다.
- ④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사살하였다.
- ⑤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웠다.

정답> ④

(가)에 '최우가 녹전거(祿轉車) 100여 대를 빼앗아 집안의 재물을 강화도로 옮기니, 수도가 흥흥하였다. …… 또 사자(使者)를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백성을 산성과 섬으로 옮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집권자 최우(집권 1219-1249)에 의해 강화도 천도가 단행된 것은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1232.6). (나)에는 '김방경과 혼도(忻都), 홍차구, 왕희, 왕용 등이 3군을 거느리고 진도를 토벌하여 크게 격파하고, 승화후 왕운을 죽였다. 김통정이 남은 무리를 이끌고 탐라로 도망하여 들어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삼별초의 난*과 관련된 자료로, 진도가 함락되자(1271년 5월) 삼별초는 김통정(?~1273)의 지휘로 다시 제주도로 건너가 항쟁하였다.

승장(僧將)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의 적장 살리타(?~1232)를 사살한 것은 몽골의 제2차 침입 시인 고려 고종 19년인 1232년의 일이다(처인성 전투)(처인부곡의 항전). 처인성은 지금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다.

*삼별초가 (전남) 진도에서 용장성을 쌓고 몽골에 항전한 것은 1270년(고려 원종 11)에서 1271년(원종 12)의 일이다(1270.6~1271.5, 진도 삼별초)(배중손(?~1271)이 지휘). 이후 삼별초는 제주도로 건너가 1271년(원종 12) 5월에서 1273년(원종 14) 6월까지 김통정(?~1273)의 지휘로 몽골에 계속 항전하였다(항파두리성).

오답 해설>

- ① 서북면도순검사 양규(?~1011)가 광주성(평북 광산군 위치)을 급습하여 탈환한 것은 현종 원년인 1010년 12월의 일이다(거란의 제2차 침입 시). 이때 남녀 7,000여 명을 구출하여 통주로 옮겼다. 그리고 곧 무로대와 이수, 여리참에서 계속 싸워 연승을 거두었으나 애전(평북 선천군으로 추정)에서 귀주 별장 김숙흥과 함께 거란 성종이 이끈 대군에 맞서 싸우다 군사와 화살이 다 떨어져 전사하였다.
- ② 무신 최무선(1325~1395)이 화포로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친 것은 고려 우왕 6년인 1380년의 일이다(1380.8, 진포 대첩[해전]). 진포는 오늘날 금강 하류 일대로 충남 서천 남쪽이다(전북 군산이라는 소수 설도 있음).
- ③ 강조(?~1010)가 정변을 일으켜 김치양(?~1009)을 제거하고 국왕까지 폐위한 것은 1009년(목종 12)의 일이다[목종(재위 997-1009, 제7대)]. 강조의 정변은 거란의 제2차 침입의 빌미가 되었다(1010~1011).
- ⑤ 이자겸(?~1126)과 척준경(?~1144)이 반란을 일으켜 궁궐을 불태운 것은 고려 인종 4년인 1126년의 일이다(이자겸의 난). 이자겸은 예종과 인종의 장인인 동시에 인종의 외조부였다.

16 - 원 간섭기의 사회 모습

16.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1점]

- 당시 응방·겁령구 및 내수(內豎) 등의 천한 자들이 모두 사전(賜田)을 받았는데, 많은 경우는 수백 결에 이르렀다. 일반 백성을 유인하여 전호로 삼고, 가까운 곳에 있는 민전에서는 모두 수조하였으므로 주와 현에서는 부세가 들어올 바가 없게 되었다.
- 공주가 장차 입조(入朝)할 예정이었으므로, 인후와 염승익에게 명하여 양가의 자녀로서 나이가 14~15세인 자들을 선발하였고, 순군(巡軍)과 흘적(忽赤) 등으로 하여금 인가를 수색하게 하였다. 혹 밤중에 침실에 돌입하거나 노비를 포박하여 심문하기도 하였으니, 비록 자녀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깜짝 놀라 동요하게 되었다. 원망하며 우는 소리가 온 거리에 가득하였다.

- ① 최충이 9재 학당을 설립하였다.
- ②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하였다.
- ③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이 유행하였다.
- ④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대장경이 조판되었다.
- ⑤ 기근에 대비하기 위하여 구황촬요가 간행되었다.

정답> ③

위의 자료에 '당시 응방·겁령구** 및 내수(內豎)*** 등의 천한 자들이 모두 사전(賜田)을 받았는데, 많은 경우는 수백 결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일반 백성을 유인하여 전호로 삼고, 가까운 곳에 있는 민전에서는 모두 수조하였으므로 주와 현에서는 부세가 들어올 바가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려사』권123 열전 권제36 '염승익이 전민을 탈점하여 탄핵받다'). 이어 아래의 자료에는 '공주가 장차 입조(入朝)할 예정이었으므로, 인후와 염승익에게 명하여 양가의 자녀로서 나이가 14~15세인 자들을 선발하였고, 순군(巡軍)과 흘적(忽赤)**** 등으로 하여금 인가를 수색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혹 밤중에 침실에 돌입하거나 노비를 포박하여 심문하기도 하였으니, 비록 자녀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깜짝 놀라 동요하게 되었다. 원망하며 우는 소리가 온 거리에 가득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려사』권123 열전 권제36 '염승익과 안후가 양가의 딸을 수색하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 나타난 시기는 원 간섭기*****에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다. 모두 염승익(?~1302)의 악행과 관련된 자료로, 아래의 자료는 제국 대장 공주의 명으로 원에 보낼 공녀를 징발하여 원성을 산 사건이다(1278, 충렬왕 4).

원 간섭기에 지배층을 중심으로 변발과 호복과 같은 '몽골풍'이 유행하였다(원에서는 반대로 고려 풍습인 '고려양' 유행)

*매(해동청)를 조련시키는 응방(鷹坊)에 대한 기록은 충렬왕 원년인 1275년에 처음으로 보인다. 몽골에서 매를 보내라는 요구가 잦아 충렬왕 9년인 1283년에 응방을 관장하는 응방도감을 두기도 하였다.

**겁령구: 원 공주의 시종(시종인)으로, 공주의 위세에 힘입어 고려에서 높은 지위를 얻어 권력을 행사하였다.

***내수(內豎): 환관(宦官), 즉 내시(內侍)를 가리킨다.

****순군(巡軍), 흘적(忽赤): 순군은 도적을 잡거나 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군대(순마군)이고(1277, 충렬왕 3), 흘적은 왕실을 호위하는 군대이다. 국왕 측근의 친위병 역할을 하였다.

*****원 간섭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는 여러 설이 있지만 대체로 원종의 환도령으로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1270년(원종 11)부터 시작되어(개경 환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성공'한 1356년(공민왕 5)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4쪽 25번 아래 추가 해설>

17 - 조선 태종(사건원 독립)

17.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2점]

오늘 말씀해 주실 삼공신회맹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 문서에는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가)이/가 삼공신들과 함께 중요사직 및 산천에 제를 올려 충의와 신의를 맹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공신은 개국공신, 제1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운 정사공신,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도움을 준 좌명공신을 말합니다.

개국정사좌명삼공신회맹문

- ①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②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하였다.
- ③ 길주를 근거지로 일어난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였다.
- ④ 문하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 ⑤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오늘 말씀해 주실 삼공신회맹문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이 문서에는 두 차례에 걸친 왕자의 난으로 즉위한 (가)이/가 삼공신들과 함께 중요사직 및 산천에 제를 올려 충의와 신의를 맹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공신은 개국공신, 제1차 왕자의 난에서 공을 세운 정사공신, 제2차 왕자의 난을 평정하는 데 도움을 준 좌명공신을 말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사진 자료로 '개국정사좌명삼공신회맹문'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료 속 '(가) 왕'은 조선 제3대 왕인 태종(재위 1400-1418)을 가리킨다. 삼공신회맹문이 작성된 것은 태종 4년인 1404년의 일이다.

문하부를 폐지하고 의정부를 설치하면서 문하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킨 것은 태종 원년인 1401년의 일이다(대신 견제책).

오답 해설>

- ①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한 것은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 참고로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왕은 세조(재위 1455-1468, 제7대)이다.
- ②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여 문신들을 재교육한 것은 정조 5년인 1781년의 일이다.
- ③ 길주를 근거지로 일어난 무신 이시애(?~1467)의 난을 진압한 것은 세조 13년인 1467년의 일이다.
- ⑤ 봉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를 성균관에 건립한 것은 영조 18년인 1742년의 일이다(성균관 앞 반수교 옆).

18 - 절제[충익공] 김종서

18.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것은 (가)이/가 함길도에 있을 때 화살이 날아왔는데도 놀라지 않고 태연히 연회를 계속 즐겼다는 고사를 담은 야연사준도입니다. 세종 대 함길도 병마도절제사로 활약했던 그는 문종 대 고려사절요 편찬을 총괄하였고, 단종 대 좌의정의 자리에 올랐으나 계유정난 때 살해되었습니다.



- ① 두만강 일대에 6진을 개척하였다.
- ②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다.
- ③ 조총 부대를 이끌고 나선 정벌에 나섰다.
- ④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 ⑤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정답> ①

'북관유적도첩* 특별전'이라는 제목 아래 '이것은 (가)이/가 함길도에 있을 때 화살이 날아왔는데도 놀라지 않고 태연히 연회를 계속 즐겼다는 고사를 담은 야연사준도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세종 대 함길도 병마도절제사로 활약했던 그는 문종 대 고려사절요 편찬을 총괄하였고, 단종 대 좌의정의 자리에 올랐으나 계유정난 때 살해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각 1435(세종 17)/1452(문종 2년)/1453(단종 원년)].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인물'은 절제[충익공] 김종서(1383~1453)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김종서가 두만강 일대에 6진을 개척한 것은 조선 세종 16년인 1434년의 일이다. 참고로 4군도 무신 최윤덕(1376~1445)에 의해 압록강 상류 지역에서 개척되었다(1433, 세종 15). 4군과 6진 모두 완성하기까지 대략 10여 년이 걸렸다.

*『북관유적도첩(北關遺蹟圖帖)』에 실려 있다. 『북관유적도첩』은 조선 후기인 17~18세기에 만들어진 역사 화첩(畫帖)으로, 북관(지금의 함경도)에서 용맹과 기개를 떨친 장수들의 업적을 기록한 것이다(화자 미상). 고려 예종 대부터 조선 선조 때까지 총 8가지의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적경입비(拓境立碑), 야연사준(夜宴射樽), 야전부시(夜戰賦詩), 출기파적(出奇破賊), 등림영회(登臨淸懷), 일전해위(一箭解圍), 수책거적(守柵拒敵), 창의토왜(倡義討倭)].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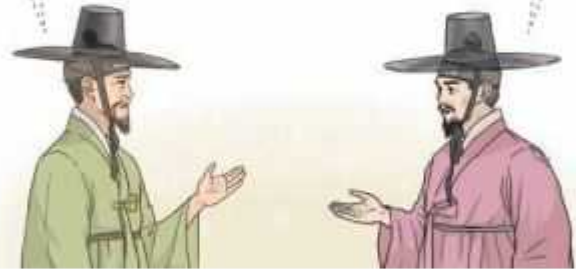
- ② (임진왜란 발발 직후 충북 충주의)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운 인물은 삼도도순변사 신립(1546~1592)이다(1594.4.26~28).
- ③ 조총 부대를 이끌고 나선 정벌에 나선 인물은 무신 변급(?~?)과 무신 신류(1619~1680) 두 사람이다[효종 5년인 1654년(변급 통솔)과 효종 9년인 1658년(신류 통솔) 두 차례 나선 정벌 단행].
- ④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한 대표적인 인물은 무신 이종무(1360~1425)이다(1419, 세종 원년). 쓰시마섬은 고려 말과 조선 초에 세 차례 토벌되었는데, 고려 말인 창왕 원년(1389)에 무신 박위(?~1398)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문신 김사형(1341~1407)이 태조 5년인 1396년에, 무신 이종무가 세종 원년인 1419년에 각 쓰시마섬을 토벌하였다(각 1396.12~1397.1/1419.6~7). 참고로 이종무의 쓰시마섬 정벌을 기해동정(己亥東征)이라고 부른다.
- ⑤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획득한 인물은 고려의 문신 서희(942~998)이다. 거란의 제1차 침입 시 거란의 적장 소손녕(?~?)과의 외교 담판을 통해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993, 고려 성종 12).

19 - 조선 성종 대의 사실

19. 밑줄 그은 '전하'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며칠 전 전하께서 예문관에서 옛 집현전의 직제를 분리하여 홍문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명하셨다고 하네. 이제 홍문관이 옛 집현전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이지.

홍문관원들이 경연관을 겸한다고 하니 앞으로 경연이 더욱 활성화되겠군.



- ①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되었다.
- ② 백운동 서원이 사액을 받아 소수 서원이 되었다.
- ③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완성되었다.
- ④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 ⑤ 수조권이 세습되던 수신전과 홀양전이 폐지되었다.

정답> ③

왼쪽 말풍선에 '며칠 전 전하께서 예문관에서 옛 집현전의 직제를 분리하여 이관하는 것을 명하셨다고 하네, 이제 홍문관이 옛 집현전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것이지'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홍문관원들이 경연관을 겸한다고 하니 앞으로 경연이 더욱 활성화되겠군'이라는 말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전하'는 조선의 제9대 국왕인 성종(재위 1469-1494)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왕의 정책 자문과 경연을 담당하던 홍문관이 처음 설치된 것은 성종 9년인 1478년의 일이다.

국가의 의례를 정비한 『국조오례의』가 완성된 것은 성종 5년인 1474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된 것은 정조 17년인 1793년의 일이다.
- ② 백운동 서원이 사액을 받아 소수 서원이 된 것은 명종 5년인 1550년의 일이다. 풍기 군수 신재 주세붕(1495~1554)이 안향을 제사하기 위하여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는데(1543, 중종 38), 이후 퇴계 이황(1501~1570)이 1550년 풍기 군수로 부임하였을 때 이를 알고 국왕에게 아뢰어 소수 서원이라는 액서를 하사받게 된 것이다(사액 서원의 시초).
- ④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속대전』이 편찬된 것은 영조 22년인 1746년의 일이다.
- ⑤ 수조권이 세습되던 수신전과 홀양전이 폐지된 것은 직전법 시행 때의 일이다(1466, 세조 12). 직전법에서는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20 - 정암 조광조 중심의 기묘사림

20.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조광조 등이 아뢰기를, “소격서가 요사하고 허탄함은 이미 경연에서 다 아뢰었고 전하께서도 그것이 허탄함을 환히 아시니 지금 다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 신광한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조광조가 아뢰었던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각별히 천거하는 것은 한(漢)에서 시행한 현량과와 효령과를 따르는 것이 가합니다. 이것은 자주 할 수는 없으나 지금은 이를 시행할 만한 기회입니다.……”라고 하였다.

- ① 호포제를 실시한 배경을 조사한다.
- ② 기해 예송의 전개 과정과 결과를 파악한다.
- ③ 중종 때 사람과 언관들이 제기한 주장을 검색한다.
- ④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입은 피해를 찾아본다.
- ⑤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한 사건을 알아본다.

정답> ③

위의 자료에 '조광조 등이 아뢰기를, 소격서가 요사하고 허탄함은 이미 경연에서 다 아뢰었고 전하께서도 그것이 허탄함을 환히 아시니 지금 다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아래의 자료에 '신광한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조광조가 아뢰었던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각별히 천거하는 것은 한(漢)에서 시행한 현량과와 효령과를 따르는 것이 가합니다. 이것은 자주 할 수는 없으나 지금은 이를 시행할 만한 기회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조광조', '소격서'와 '현량과'라는 표현들을 통해 주어진 자료는 정암 조광조(1482~1519)와 관련된 일임을 알 수 있다. 소격서는 도교 의식을 주관하던 기구로 조광조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폐지된 바 있다(1518, 중종 13). 또 현량과는 사람들의 중용[청요직 임명]을 위해 조광조가 건의한 것이다(1519, 중종 14).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개혁은 훈구 세력과 중종의 의혹을 낳아 기묘사화가 발생하고 말았다(1519, 중종 14).

중종 때 조광조와 같은 사람과 언관들(흔히 '기묘사림[기묘명현]'이라고 함)이 제기한 주장을 검색하는 탐구 활동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해설>

① 호포제[호포법]는 양반과 상민(평민)의 구분 없이 호(戶)를 단위로 군포를 징수함으로써 결국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한 하는 제도이다. 조선 후기에 시행 여부를 계속 논의되었으나 양반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조선 고종 8년인 1871년에 이르러서야 처음 시행되었다.

②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발생한 것은 조선 현종 대(재위 1659-1674, 제18대)이다[1차 예송(기해예송)-1659(현종 즉위년)/2차 예송(갑인예송)-1674(현종 15)]. 그중 1차 예송인 기해예송은 효종의 사후 발생한 예송으로 결과적으로 서인의 기년설(1년설)이 채택되었다(서인 승리)[참고로 2차 예송(갑인예송)에서는 기년설(1년설)을 주장한 남인 승리, 서인은 대공설(9개월설) 주장]. 예송은 결국 차남으로 왕위에 오른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함(장자로 대우)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는 남인과 효종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음(장자로 대우하지 않음)으로써 신권을 강화하려는 서인 간의 권력 투쟁[이념 대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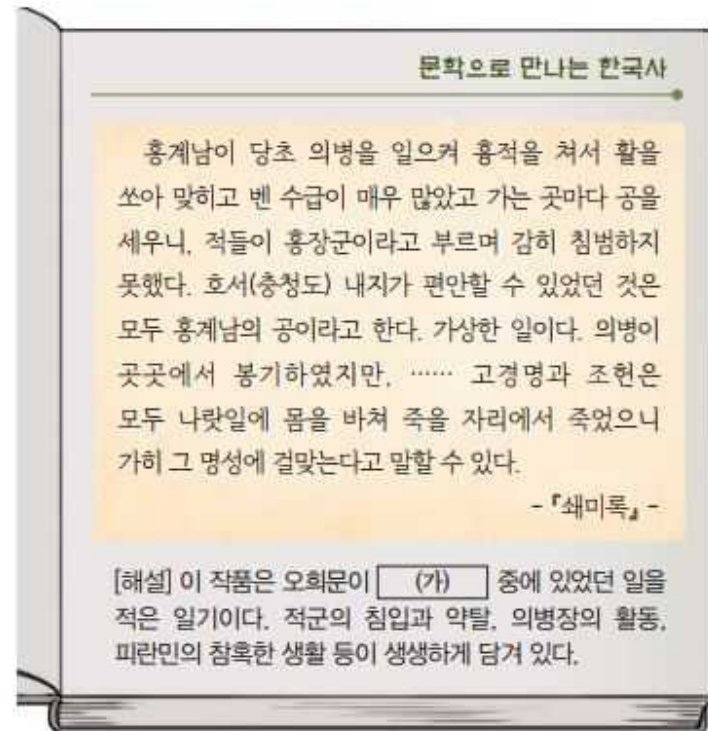
*자의 대비: 16대 국왕인 인조의 계비(1624~1688). 현종 대의 대왕대비(현 왕의 할머니)

④ 정여립 모반 사건으로 기축옥사가 일어난 것은 선조 22년인 1589년의 일이다. 1591년까지 정여립(1546~1589)과 연루된 다수의 동인이 희생되었다.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도 하다.

<14쪽 25번 아래 추가 해설>

21 - 임진왜란

21.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 ② 왕이 도성을 떠나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였다.
- ③ 송시열, 이완 등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되었다.
- ④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신설되었다.
- ⑤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체결되었다.

정답> ①

문학으로 만나는 한국사라는 제목 아래 '홍계남이 당초 의병을 일으켜 흉적을 쳐서 활을 쏘아 맞히고 벤 수급이 매우 많았고 가는 곳마다 공을 세우니, 적들이 홍장군이라고 부르며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호서(충청도) 내지가 편안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홍계남의 공이라고 한다. 가당한 일이다. 의병이 곳곳에서 봉기하였지만, …… 고경명과 조현은 모두 나랏일에 몸을 바쳐 죽을 자리에서 죽었으니 가히 그 명성에 걸맞는다고 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해설로 '이 작품은 오희문이 (가) 중에 있었던 일을 적은 일기이다. 적군의 침입과 약탈, 의병장의 활동, 피란민의 참혹한 생활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전쟁'은 조선 선조 25년인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592.4~1598.11, 정유재란 포함]. 출처인 『쇄미록』은 오희문이 임진왜란 발발 직전부터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까지 겪은 일을 적은 일종의 피란일기이다(9년 3개월). 참고로 오희문(1539~1613)은 인조 대의 영의정 오윤겸(1559~1636)의 부친이자 병자호란 때 삼학사 중 한 사람인 오달제(1609~1637)의 조부이다.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된 것은 임진왜란 발발 이듬해인 1593년(선조 26) 8월의 일이다. 조선 후기 5군영 체제 가운데 가장 먼저 설치되었다.

오답 해설>

② 왕(인조)이 도성을 떠나 남한산성으로 피란한 것은 인조 14년인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 때이다(1636.12~1637.1).

*병자호란이 발생한 병자년 음력 12월 10일은 양력으로 1637년 1월 5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다.

③ 우암 송시열(1607~1689), 이완(1602~1674) 등을 중심으로 북벌이 추진된 것은 효종 대의 일이다. 특히 효종은 이완(1602~1674)을 어영대장으로 임명하고 도성 안에 어영청을 두어 어영군을 북벌의 핵심 부대로 양성하고자 하였다(1652, 효종 3). 참고로 송시열이 효종의 북벌론에 진정으로 동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내수외양을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북벌이라는 외양(外攘)보다 내수(內修)를 더욱 중시]. <14쪽 25번 아래 추가 해설>

22 -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

22.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답사 계획서

- 주제: 불교 문화유산이 숨 쉬는 곳, 산사(山寺)를 찾아서
- 유네스코가 주목한 사찰을 중심으로
- 기간: 2024년 00월 00일~00일
- 경로: 보은 법주사 → 영주 부석사 → 안동 봉정사 → 합천 해인사
→ 순천 선암사

- ① (가) - 오층 목조탑 내부에 부처의 일생을 그린 팔상도가 있다.
- ② (나) - 배흘림기둥에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된 무량수전이 있다.
- ③ (다) -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 건물인 극락전이 있다.
- ④ (라) -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 있다.
- ⑤ (마) -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된 삼층 석탑이 있다.

정답> ⑤

답사 계획서의 주제로 '불교 문화유산이 숨 쉬는 곳, 산사(山寺)를 찾아서 - 유네스코가 주목한 사찰을 중심으로'가 제시되어 있다. 이어 경로로 '보은 법주사 → 영주 부석사 → 안동 봉정사 → 합천 해인사 → 순천 선암사'가 차례로 나와 있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은 2018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총 7군데로 경남 양산의 통도사, 경북 영주의 부석사, 경북 안동의 봉정사, 충북 보은의 법주사, 충남 공주의 마곡사, 전남 순천의 선암사, 전남 해남의 대흥사가 그에 해당한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석탑의 탑신부)에서 발견된 것은 경주 불국사 삼층 석탑(석가탑)이다.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만들어진 것은 8세기 전반(700년대 초에서 751년 사이)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불경 인쇄본]이다.

오답 해설>

- ① 보은 법주사에는 오층 목조탑 내부에 부처의 일생을 그린 팔상도가 있다. 보은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 후기인 17세기의 건축물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5층 목탑이다. 참고로 법주사 안에는 석련지(국보 제64호)와 쌍사자 석등(국보 제5호)도 있다.
- ② 영주 부석사에는 배흘림기둥에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된 무량수전이 있다(기와지붕 형태는 팔각지붕).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고려 시대의 목조 건물로, 건물 내부에는 소조(아미타)여래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 ③ 안동 봉정사에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 건물인 극락전이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 역시 고려 시대의 목조 건축물로, 배흘림기둥에 주심포 양식을 갖추고 있다(13세기 초 내지 중반 경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기와지붕 형태는 맞배지붕).
- ④ 합천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이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이 있다.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은 조선 전기인 15세기의 건축물이다.

23 - 대동법

23. 밑줄 그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수취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방의 특산물을 징수하면서 나타난 방납의 폐단을 막아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공물을 현물 대신 토지의 결 수에 따라 쌀로 납부합니다.

〈보기〉

- ㄱ. 선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 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하였다.
- ㄷ.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 ㄹ. 어장세, 선박세 등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왼쪽의 말풍선에 '이원익의 건의로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수취 제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의 말풍선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지방의 특산물을 징수하면서 나타난 방납의 폐단을 막아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공물을 현물 대신 토지의 결 수에 따라 쌀로 납부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제도'는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부터 시행된 대동법*을 가리킬 수 있다(~1708)

*대동법은 공물(특산물)을 쌀, 옷감(삼베·면포), 동전(이른바 대동미, 대동포, 대동전) 등으로 바치게 한 납세 제도이다. 백성들의 공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다(1결당 쌀 12두)(공납의 전세화).

ㄱ. 선혜청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 제도는 대동법이다. 광해군 즉위년인 1608년 당시 영의정이었던 오리 이원익(1547~1634)이 방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선혜청을 두고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청하였다.

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지주에게 결작을 부과한 제도는 영조 26년인 1750년에 시행된 균역법이다. 균역법 시행에 따른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일부 부유한 양민에게 선무 군관포를(매년 1필의 면포나 2냥). 또 1결당 쌀 2두의 결작과 해세·어장세·선박세 등을 징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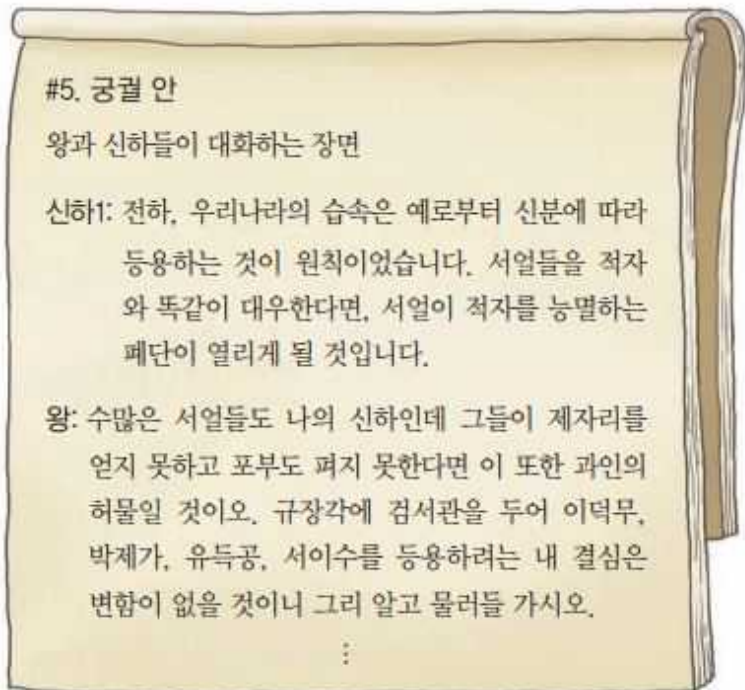
ㄷ.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貢人)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 제도는 대동법이다.

ㄹ. 어장세, 선박세 등이 국가 재정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 제도는 앞서 설명한 균역법이다.

이상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ㄱ과 ㄷ'이다.

24 - 조선 정조 시기의 사실

24.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제제가 시행되었다.
- ② 거중기 등을 활용하여 수원 화성이 축조되었다.
- ③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되었다.
- ④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이 편찬되었다.
- 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삼정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정답> ②

'#5. 궁궐 안'에서 '왕과 신하들이 대화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신하 1이 '전하, 우리나라의 습속은 예로부터 신분에 따라 등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서얼들을 적자와 똑같이 대우한다면, 서얼이 적자를 능멸하는 폐단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고 말한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왕이 '수많은 서얼들도 나의 신하인데 그들이 제자리를 얻지 못하고 포부도 펴지 못한다면 이 또한 과인의 허물일 것이오. 규장각에 검서관을 두어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이수를 등용하려는 내 결심은 변함이 없을 것이니 그리 알고 물러들 가시오'라고 답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규장각 검서관 *으로 서얼 4인을 등용한 왕은 조선의 제22대 국왕인 정조(재위 1776~1800)이다(1779, 정조 3).

거중기 등을 활용하여 수원 화성이 축조된 것은 조선 정조 20년인 1796년의 일이다(1794.2~1796.9)(사적 제3호). 거중기를 설계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1762~1836)으로(1789, 정조 13), 거중기는 한강에 배다리를 놓는 데도 사용되었다. 참고로 수원 화성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규장각 검서관: 정조는 규장각 외각에 검서관(檢書官)이라는 [정직(正職)이 아닌] 잡직(雜職)을 두고 초대 검서관으로 서얼 출신인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를 임명하였다(이른바 '사(四)검서관(四檢書官)'). 이들의 기본 임무는 규장각 각신(閣臣)을 보좌하고 문서를 필사하는 것이었는데, 정조는 문신들이 매월 강(講)을 할 때 왕과 신하들 사이에 논의되는 내용을 검서관으로 하여금 기록하고 서명하여 보관하게 하는 등 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14쪽 25번 아래 추가 해설>

25 - 조선 후기에 볼 수 있는 모습

25.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김화진 등이 아뢰기를, "..... 만상과 송상이 함께 수많은 가족을 마음대로 밀무역을 합니다. 수달 가족은 금지 품목 가운데 하나인데 변경을 지키는 관리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1년, 2년이 되면 곧 일상적인 물건과 같아지니 이후로는 한결같이 법전에 의거하여 금지 조항을 거듭 자세히 밝혀서 송상과 만상에게 법을 범해서는 안 되며,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적발하여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살피지 못한 변방의 관리들도 드러나는 대로 무겁게 다스린다는 뜻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

- ① 채굴 노동자를 고용하는 덕대
- ② 벽란도에서 교역하는 송의 상인
- ③ 상평통보로 물건을 거래하는 보부상
- ④ 포구에서 물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여각
- ⑤ 담배, 인삼 등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정답> ②

'김화진 등이 아뢰기를, 만상과 송상이 함께 수많은 가족을 마음대로 밀무역을 합니다. 수달 가족은 금지 품목 가운데 하나인데 변경을 지키는 관리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1년, 2년이 되면 곧 일상적인 물건과 같아지니 이후로는 한결같이 법전에 의거하여 금지 조항을 거듭 자세히 밝혀서 송상과 만상에게 법을 범해서는 안 되며,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일이 적발하여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아울러 살피지 못한 변방의 관리들도 드러나는 대로 무겁게 다스린다는 뜻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합니다.' 라고 하니, 임금이 그리하라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만상과 송상'이라는 표현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 상황은 조선 후기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벽란도에서 송의 상인이 교역한 것은 고려 전기의 일이다. 예성강 하류에 있었던 벽란도는 고려 전기의 대표적인 국제 무역항이었다(벽란도라는 항구의 이름이 벽란정에서 유래).

오답 해설>

- ① 채굴 노동자를 고용한 광산 전문 경영자 덕대(德大)가 활동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 ③ 상평통보가 법화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 숙종 4년인 1678년부터이다(조선 후기). 이후 상평통보는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 ④ 포구에서 물품의 매매를 중개하는 여각이 등장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여각은 선상(船商) 및 보부상 등의 상인들 사이에서 상품의 보관 및 전달 등을 담당하는 한편, 숙박 시설을 제공하였다. 여각은 여객주인(旅客主人)을 달리 부르던 말로, 선주인(船主人), 강주인(江主人), 포구주인(浦口主人), 객주(客主), 등의 명칭으로도 불렸다. 여각 중에서도 경강[한강]의 여객주인은 서울 [한성]로 유입되는 각종 상품을 거간, 위탁 판매하여 큰 수익을 거둬으로써 사상도고(私商都賈)화되었다.
- ⑤ 담배, 인삼 등의 상품 작물이 재배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8번 오답 해설>

- ④ 유식의 교의를 담은 『해심밀경소』, 『인왕경소』 등을 저술한 인물은 신라의 고승 원측(613~696)이다. 원측은 중국의 삼장법사 현장(602~664)에게서 유식학(唯識學)을 배운 후 자신만의 독자적인 유식 사상 체계를 수립하였다(중국에서 활동).
- ⑤ 국왕[신문왕]에게 조언하는 내용의 「화왕계」를 저술한 인물은 신라의 유학자이자 문장가인 설총(655~?)이다(680년대).

<10번 오답 해설>

- ② 궁예(?~918)가 국호를 태봉으로 바꾼 것은 재위 11년인 911년의 일이다(연호 수덕만세).
- ④ 윤춘(?~?)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것은 642년(백제 의자왕 2)의 일이다. 대야성은 지금의 경남 합천 지역으로 당시에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 ⑤ (달솔) 흑치상지(630?~689)가 임존성에서 부흥군을 이끌며 백제 부흥 운동을 전개한 것은 660년 8월 백제 멸망 직후의 일이다(660.8~663.8). 임존성(오늘날 충남 예산 대흥)을 거점으로 하여 3만 명의 병력을 수습하고, 당군을 격퇴하면서 2백여 성을 회복하였다[의자왕의 사촌 동생인 복신(?~663)과 승려 도침(?~661)은 주류성을 근거로 백제 부흥 운동을 일으킴]. 이후 당의 회유에 의해 별부장 사타상여와 함께 당에 투항하였다(663.8).

<11번 오답 해설>

- ⑤ 설점수제제를 시행하여 민간의 광산 개발을 허용된 것은 조선 효종 2년인 1651년의 일이다. 설점수제란 수요가 많았던 연(鉛)[납]이나 은(銀) 광산[생산지]에 '점(店)'을 설치하고 (호조에서 채은관을 파견하여) 세금을 징수한 것을 말한다(19세기에 민간이 광맥 탐사 및 개발에서 경영까지 전 과정을 맡는 물주제로 대체).

<13번 오답 해설>

- **광종은 즉위년(949)에 '광덕(光德)'이라는 연호를 처음 사용하였고[재위 4년인 953년까지 사용], 이후 중국 후주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다가 재위 11년인 960년에 이르러 다시 '준풍(峻豊)'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광종 14년인 963년에 중국 송과 국교를 연 후에는 송의 연호를 다시 사용하면서 자국의 연호[준풍]를 폐지하였다. [백관의 공복(公服)을 등급에 따라 제정하고] 개경을 황도(皇都)라 하고 서경을 서도(西都)라 칭한 것은 광종 11년(960)의 일이다.
- ④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개경에 나성을 축조한 왕은 고려 현종(재위 1009-1031, 제8대)이다[1009(현종 즉위년)~1029(현종 20)]. 강감찬(948~1031)이 개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의하였다.
- ⑤ 「정계(政誠)」(1권)와 「계백료서(誠百寮書)」(8편)를 지어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왕은 고려 태조(재위 918-943, 제1대)이다(936, 태조 19).

<16번 오답 해설>

- 오답 해설>
- ① 최충(984~1068)이 9재 학당을 설립한 것은 고려 문종 9년인 1055년의 일이다. 이후 이를 본받은 사학 12도가 변성하였다[고려 문종 대(재위 1046-1083, 제11대)](사학 12도 중 11개가 도입인 개경에 설치).
- ② 만적(?~1198)이 개경에서 노비를 모아 반란을 모의한 것은 고려 신종 원년인 1198년의 일이다. 만적의 난은 일종의 신분 해방 운동이었다.
- ④ 국난 극복을 기원하며 『초조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 현종 2년인 1011년부터 고려 선종 4년인 1087년까지이다(거란의 제2차 침입 시 조판 시작). 『초조대장경』은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 완료 후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소실되고 말았다(1232, 고종 19).
- ⑤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 『구항촬요』를 간행된 것은 조선 명종 9년인 1554년의 일이다.

<20번 오답 해설>

- ⑤ (장희빈의 무고로) 인현 왕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한 사건은 희빈 장씨 소생의 원자 책봉 문제로 발생한 기사환국이다(1689, 숙종 15). 이때 서인[노론]의 영수인 우암 송시열(1607~1689)을 비롯한 서인이 축출당하였다(송시열은 유배된 후 사사됨).

<21번 오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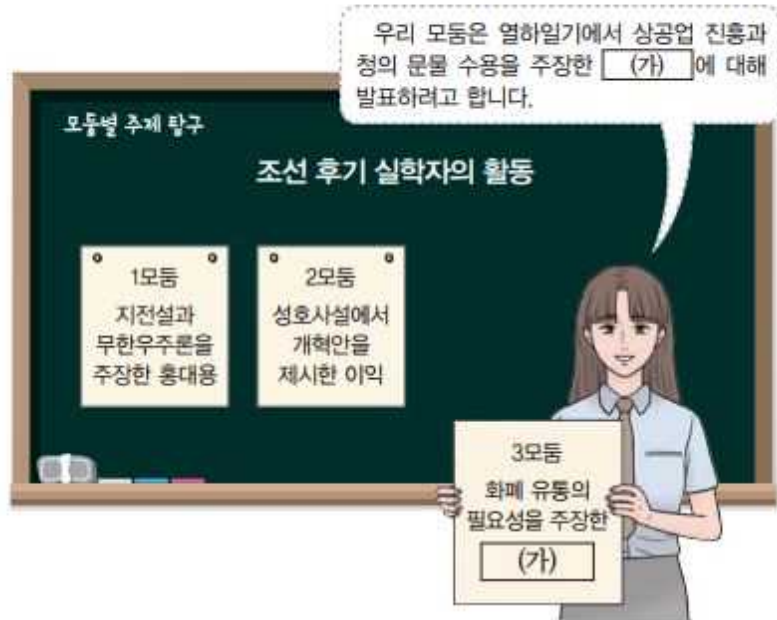
- ④ 국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변사가 신설[임시 기구로 설치]된 것은 조선 중종 5년인 1510년의 일이다(3포 왜란). 이후 비변사는 을묘왜변을 겪으면서 상설 기구화되었고(1555, 명종 10), 양 난을 거치면서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하였다(문무 합의 기구). 비국(備局), 묘당(廟堂), 주사(籌司)라고도 불렸으며, 고종 초 흥선 대원군이 집권한 시기에 혁파되었다(1865, 고종 2, 의정부와 삼군부 부활).
- ⑤ 제한된 범위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가 체결된 것은 조선 세종 25년인 1443년의 일이다. 계해약조는 조선이 대마도주와 세건선 등 무역에 관해 맺은 조약으로, 1426년(세종 8)에 있었던 삼[3]포의 개항을 비롯한 무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조선과 대마도주가 정식으로 맺은 조약이다(세건선 50척, 세사미두 200척 등). 이후 일본의 여러 세력들에 대해서도 세건선 숫자에 대한 정약이 이루어졌다.

<24번 오답 해설>

- 오답 해설>
- ①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것은 태종 14년인 1414년의 일이다. 이후 세조 원년인 1455년에 같은 목적으로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6조 직계제가 다시 시행되었다.
- ③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정계비가 건립되어 청과의 국경을 확정된 것은 숙종 38년인 1712년의 일이다.
- ④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 『대전회통』이 편찬된 것은 고종 2년인 1865년의 일이다.
- ⑤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한 삼정이정청이 설치된 것은 철종 15년인 1862년의 일이다(1862.5). 당시 진주 농민 봉기가 발생하였고, 안핵사로 파견된 환재 박규수(1807~1877)의 건의로 설치되었다.

26 - 연암 박지원

26.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하였다.
- ② 청으로부터 시현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하였다.
- ③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하였다.
- ④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하였다.
- ⑤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한 대동여지도를 완성하였다.

정답> ④

'조선 후기 실학자의 활동'이라는 제목 아래 1모듬은 '지전설과 무한우주론을 주장한 홍대용'이, 2모듬에는 '성호사설에서 개혁안을 제시한 이익'이 나와 있다. 이어 3모듬에서는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한 (가)'가 제시된 바 말풍선에서 '우리 모듬은 열하일기에서 상공업 진흥과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한 (가)에 대해 발표하려고 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인물'은 연암 박지원(1737~1805)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박지원은 연행사(燕行使)를 수행한 후 귀국한 직후 열하일기*

를 저술하였다(1780년 10월 말 귀국 후 3년에 걸쳐 완성). 「양반전」을 지어 양반의 허례와 무능을 풍자한 인물은 연암 박지원(1737~1805)이다(집필 연대 미상).

*『열하일기』: 정조 4년인 1780년에 청 건륭제의 칠순연(七旬宴)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행하는 삼종형 박명원(1725~1790)을 수행하여 청 황제의 피서지인 열하까지 여행하고 돌아온 일들을 소상하게 담은 사행일기이다(일종의 여행기인 '연행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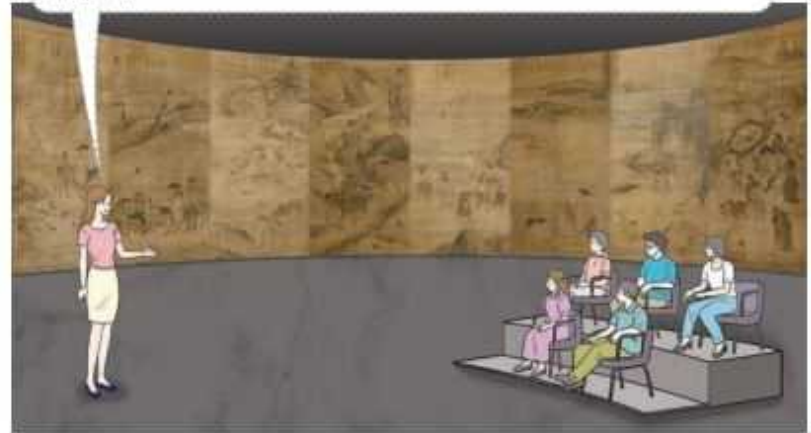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① 『금석과안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증한 인물은 추사 김정희(1786~1856)이다(1852, 철종 3).
- ② 청으로부터 시현력을 도입하자고 건의한 인물은 잠곡 김육(1580~1658)이다(1653, 효종 4).
- ③ 『우서』에서 사농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주장한 인물은 농암 유수원(1694~1755)이다(1729(영조 5)~1737(영조 13) 집필 추정).
- ⑤ (거리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 10리마다 눈금을 표시한 '대동여지도'를 완성한 인물은 고산자 김정호(1804~1866)이다(1861, 철종 12). '대동여지도'는 김정호가 당시 조선의 지도 제작 기술을 집대성하여 만든 22첩의 목판본 지도이다. 개개의 산보다 산줄기를 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며, 군현별로 다른 색을 칠하기도 하였다(채색본).

27 - 단원 김홍도

27. (가) 인물의 작품으로 옳은 것은? [1점]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대표적 풍속 화가인 단원 (가)이/가 나귀를 타고 유람하는 나그네의 시점으로 그린 행려풍속도병입니다. 8폭 병풍에는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산수와 대장간, 나루터 등 다양한 세상살이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폭의 그림 위쪽에는 그의 스승인 강세황의 그림평이 적혀 있습니다.



정답> ①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대표적 풍속 화가인 단원 (가)이/가 나귀를 타고 유람하는 나그네의 시점으로 그린 행려풍속도병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8폭 병풍에는 계절에 따라 변해가는 산수와 대장간, 나루터 등 다양한 세상살이의 모습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각 폭의 그림 위쪽에는 그의 스승인 강세황의 그림평이 적혀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단원 김홍도(1745~1806?)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김홍도가 1778년(정조 2) 담졸 강희언(1710~1784)의 집인 담졸현에서 그린 것으로 산천을 유람하는 풍류 가객이 지방의 풍속을 취재하듯이 살펴보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산수인물화).

씨름도는 김홍도의 대표 풍속화 중 하나로 씨름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구경꾼들의 모습을 실감나게 묘사하였다(『도원풍속도첩』).

오답 해설>

- ② 금강전도는 금강내산(金剛內山)[내금강]을 부감 형식의 원형 구도로 그린 겸재 정선(1676~1759)의 작품이다(진경 산수화). 인왕제색도와 함께 정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1734년작(영조 10)).
- ③ 조선 후기의 화원[화가] 금재 김득신(1754~1822)의 풍속화 '파적도'(야묘도추)[금재풍속화첩(김득신 필 풍속도 화첩)]이다. 절묘한 구도와 실감나는 묘사를 통해 화면 전체에 해학적 분위기가 흐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④ 혜원 신윤복(1758~?)의 풍속화 '월하정인'이다. 눈썹 같은 달이 떠 있는 한밤중에 어느 길모퉁이의 담장 옆에서 젊은 남녀가 은밀히 만나는 모습을 그렸다.
- ⑤ 표암 강세황(1713~1791)의 영통동구도이다(송도기행첩(1757, 영조 33)). 서양화 기법인 원근법과 명암법(음영법)이 반영되었다.

28 -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

28.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가) 순무영에서 정족산성 수성장 양현수가 보내온 보고에 의하면, "..... 우리 군사가 잠입한 사실을 적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저들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을 점령할 계책으로 그 우두머리가 말을 타고 나귀를 끌고 짐바리와 술과 음식을 가지고 등문과 남문으로 나누어 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 군사들이 좌우에 매복하였다가 일제히 총탄을 퍼부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나) 4월 24일에 계속해서 올린 강화 진무사 정기원의 치계에, "미국 배가 다시 항구로 들어와서 광성진을 습격하여 함락하였는데, 중군 어재연이 힘껏 싸우다가 목숨을 바쳤고, 사망한 군사가 매우 많습니다. 적병은 초지포 부근에 주둔하였습니다. 장수 이렴이 밤을 이용하여 습격해서야 그들을 퇴각시켰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 ① 일본 군함 운요호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 ② 오페르트가 남연군 묘의 도굴을 시도하였다.
- ③ 마젠창과 뮐렌도르프가 고문으로 파견되었다.
- ④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
- ⑤ 황사영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하였다.

정답> ②

(가)에 '순무영에서 정족산성 수성장 양현수가 보내온 보고에 의하면, 우리 군사가 잠입한 사실을 적들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저들은 우리가 지키고 있는 성을 점령할 계책으로 그 우두머리가 말을 타고 나귀를 끌고 짐바리와 술과 음식을 가지고 등문과 남문으로 나누어 들어왔습니다. 이때 우리 군사들이 좌우에 매복하였다가 일제히 총탄을 퍼부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순무천총 양현수(1816~1888)가 이끄는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활약한 것은 병인양요 때의 일이다 [1866.11, 이 외 한성군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활약(1866.10)].

(나)에는 '4월 24일에 계속해서 올린 강화 진무사 정기원의 치계에, 미국 배가 다시 항구로 들어와서 광성진을 습격하여 함락하였는데, 중군 어재연이 힘껏 싸우다가 목숨을 바쳤고, 사망한 군사가 매우 많습니다. 적병은 초지포 부근에 주둔하였습니다. 장수 이렴이 밤을 이용하여 습격해서야 그들을 퇴각시켰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진무중군 어재연(1823~1871)이 강화도 광성보에서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에 맞서 항전한 것은 신미양요 때의 일이다(1871.5). 어재연이 강화도로 급파되면서 데리고 간 부대는 훈련도감에서 2초(1초는 125명), 금위영과 어영청, 총융청 등에서 각군 1초씩을 뽑은 총 1,000여 명의 군사들이었다. 이들은 광성보 소속의 3개 돈대에 조정 배치되었다[각종 대포 143문도 동원, 어재연 장군 동생인 어재순(1826~1871)도 참전하여 싸우다 전사].

독일 상인[독일계 유대 상인] 오페르트(1832~1903)가 흥선 대원군 부친인 남연군(1788~1836) 묘 도굴을 시도하다 실패한 이른바 '오페르트 도굴 시도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고종 5년인 1868년 5월의 일이다.

오답 해설>

① 일본 군함 운요호가 (강화도와) 영종도를 공격한 것은 고종 12년인 1875년 9월의 일이다(일본의 포함 외교). 강화도 조약 체결의 빌미가 되었다.

③ 마젠창(1840~1939)(한자명 '마건상')과 (독일인) 뮐렌도르프(1848~1901)가 당시 청의 실권자인 북양대신 이홍장(1823~1901)의 추천으로 조선의 정치, 외교 고문으로 파견된 것은 1882년(고종 19) 12월의 일이다(임오군란 이후 조선을 청의 '속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청의 시도 중 하나). 마젠창은 내무아문의 후신인 통리군국사무아문(내아문)의 참의가 되었고, 곧 참찬으로 승진하여 내정에 간섭하였다. 외교 고문 뮐렌도르프(한국명 목인덕)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외아문)의 협판으로 일하면서 조미 수호통상 조약의 비준은 물론 독일,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등과의 조약 체결에 관여하는 등 대서양 외교 정책 수립을 담당하였다. 더구나 세관 업무까지 맡는 등 국내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고종의 목인 아래) 조러 밀약을 통해 러시아의 세력을 끌어들이려다 자신을 조선에 추천한 이홍장에 의해 해고되었다(1885.7).

④ 영국군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것은 고종 22년인 1885년 4월의 일이다(~1887.2)(거문도 사건).

⑤ 천주교인 황사영(1775~1801)이 외국 군대의 출병을 요청하는 백서를 작성한 것은 순조 원년인 1801년 2월(음력 1월)에 발생한 신유박해 때문이다. 박해를 피해 충청도 제천의 배론이라는 토기 굽는 마을로 피신하여 토굴에 숨어 지낸 황사영은 박해의 경과와 재건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길이 62cm, 너비 38cm의 흰 비단에 총 122행, 도합 12,384자를 검은 먹글씨로 깨알같이 썼으며, 이를 북경의 구베아 주교(?~1808)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다(황사영 백서 사건).* 그러다 결국 같은 해 9월에 체포되었다.

*황사영 백서 내용: 구체적으로는 1785년(정조 9) 이후의 조선 교회의 사정과 박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 다음, 신유박해의 상세한 전개 과정과 순교자들의 간단한 약전을 적었다. 그리고 주문모 신부의 활동과 자수, 그의 죽음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끝으로, 폐허가 된 조선 교회를 재건하고 신앙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29번 오답 해설>

⑤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되는 결과를 가져온 조약은 고종 13년인 1876년 2월에 체결된 조일 수호 통상 조약, 즉 강화도 조약을 가리킨다(1876.2.27)(제4조). 그에 따라 부산이 1876년에, 원산이 1880년에, 인천이 1883년에 개항하였다.

29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29. (가)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 ②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 ④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 ⑤ 부산, 원산, 인천이 개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답> ①
 통합 검색으로 '보빙사'라는 말이 나와 있다. 설명으로 '미국에서 발행된 Frank Leslie's Illustrated Newspaper' 1883년 9월 29일자에 실린 보빙사의 사진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전권대신 민영익과 부대신 홍영식 등으로 구성된 보빙사는 (가) 체결로 미국 공사가 부임하자 그에 대한 답례로 파견되었다. 미국에서 아서 대통령을 만나고 우체국, 신문사, 병원 등 각종 근대 시설을 시찰하고 돌아왔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조약'은 고종 19년인 1882년 5월에 맺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882.5.22)(음력으로는 4월 6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에서 최혜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하였다(제2조). 최혜국 대우란 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고 있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따른 미국 공사의 부임에 대한 답례로 전권대신 민영익(1860~1914)을 대표로 한 보빙사가 파견된 것은 조선 고종 20년인 1883년 7월의 일이다(~1884.5). 보빙사 일행은 미국 뉴욕에서 체스터 앨런 아서 미국 대통령(재임 1881~1885, 제21대)을 접견하였으며, 이어 보스턴 만국 박람회를 참관하고, 병원, 전신 회사, 우체국 등을 시찰한 후 귀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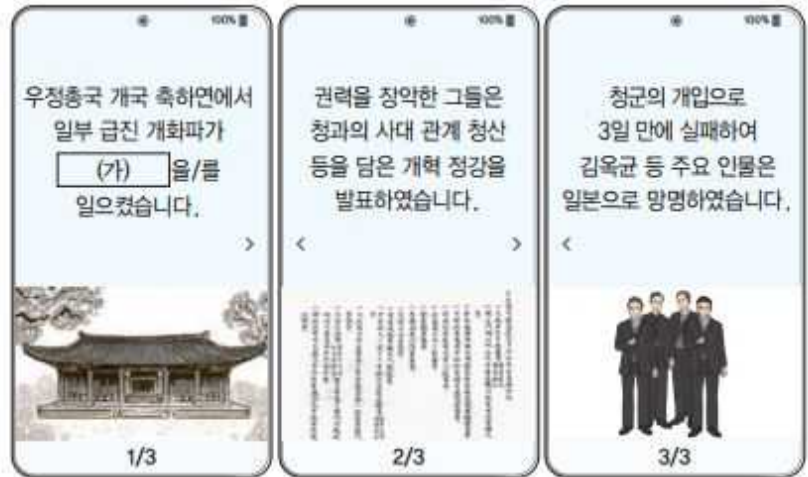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② 통감부가 설치되는 계기가 된 조약은 제2차 한일 협약, 즉 을사늑약을 가리킨다(1905.11.17). 을사늑약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감부가 이듬해인 1906년 2월에 설치되었다(1906.2.1).
- ③ 천주교 포교 허용의 근거가 된 조약은 조보 수호 통상 조약이다 [1886.6.4(음력으로는 5월 3일)]. 조약에서 천주교 포교 허용이 직접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양국은 제9조를 근거로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서로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 ④ 재정 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조약은 1904년 8월에 체결된 제1차 한일 협약이다(1904.8.22)(제1조). 제2조에서는 외무[외교] 고문도 두도록 하였는데 그에 따라 메가타(1853~1926)가 재정 고문으로, 미국인 (더햄 화이트) 스티븐스(1851~1908)가 외무[외교] 고문으로 초빙되었다.

<16쪽 28번 아래 추가 해설>

30 - 갑신정변

3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전개 과정에서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 ② 수신사가 파견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③ 한성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④ 사대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 ⑤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 일어났다.

정답> ③

맨왼쪽에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일부 급진 개화파가 (가)을/를 일으켰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1/3). 이어 가운데에 L, L '권력을 장악한 그들은 청과의 사대 관계 청산 등을 담은 개혁 정강을 발표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2/3). 맨오른쪽에는 '청군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하여 김옥균 등 주요 인물은 일본으로 망명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3/3).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고종 21년인 1884년 12월에 일어난 갑신정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갑신정변을 수습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 사이에 한성 조약이 체결되었다(1885.1). 그리고 청과 일본도 별도로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다(1885.4).

오답 해설>

- ① 전개 과정에서 (일종의 농민 자치 기구인) 집강소가 설치된 것은 동학 농민 운동이다(동학 농민군의 제1차 봉기 후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물러난 시기). 고종 31년인 1894년 7월에 제1차 봉기 주동자인 전봉준(1855~1895)과 전라도 관찰사인 김학진(1838~1917) 사이에 집강소 설치가 합의되었으며, 호남 지방의 각 군현에 설치되었다(호남뿐 아니라 충청도와 경상도,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군현에도 설치되었다는 주장 있음).
- ② 수신사가 파견되는 데 영향을 준 것은 사건으로는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1876)과 임오군란(1882)을 들 수 있다. 수신사는 총 네 차례 파견되었는데 1차 수신사[창산 김기수]는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인 1876년 4월에(~윤6월), 2차 수신사[도원 김홍집]는 통상 장정을 개정하여 관세를 설정하는 문제 등으로 1880년 6월에(~8월), 3차 수신사[조병호]는 관서 설정을 확정하기 위해 1881년 8월에(~11월), 마지막으로 4차 수신사[박영효]는 임오군란을 수습하기 위해 1882년 8월에(~11월) 일본에 파견되었다. 참고로 4차 수신사의 공식 명칭은 '특명 전권 대신 겸 수신사'이다.
- ④ 사대 수습을 위해 (연암 박지원의 손자인) 환재 박규수(1807~1877)가 안핵사*로 파견된 사건은 철종 13년인 1862년 2월에 발생한 진주 농민 봉기이다.

*안핵사(按覈使): 조선 후기 지방에서 민란이나 봉기가 발생했을 때 이의 처리[수습]를 위해 파견된 임시 직책이다. 목사, 군수 등 인근 지역의 수령이 주로 임명되었으나 때로는 중앙의 관리인 경관(京官)이 임명되기도 하였다. 안핵사는 사건의 원인과 진행 등의 전말과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중앙에 보고하였다. 또, 사건의 처리 방안을 건의하여 조정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습하려 하였다. 사실 안핵사가 파견된다 하여 특별한 대책을 내놓기 어려웠으므로 관리들은 임명을 꺼려하였다. 또 민란이 일어날 때마다 안핵사가 파견되었던 것도 아니다.

⑤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사건은 임오군란이다(1882.6~7). 청은 봉기의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납치하여 중국 텐진 보정부에 억류하였다(1885년 8월 귀국).

<31번 오답 해설>

- ③ 일제에 의해 창경원으로 격하되기도 한 궁궐은 창경궁이다. 창경궁의 처음 이름은 수강궁(壽康宮)으로, 1418년 왕위에 오른 세종이 생존한 상왕인 태종을 모시기 위해 지은 궁이다(1419, 세종 원년). 창덕궁과 함께 동궐(東闕)로 불렸다. 순종 즉위 후 창경궁은 일제에 의하여 크게 훼손되었는데, 1909년(순종 3) 일제는 궁 안의 전각들을 헐어버리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설치하였고, 궁원을 일본식으로 변모시켰다. 한일 병탄이 이루어진 직후인 1911년에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하시켰다.
- ④ 삼봉 정도전(1342~1398)이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정한 궁궐은 경복궁**이다(1395, 태조 4).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정궁(正宮)이자 법궁(法宮)이다. 도성의 북쪽에 있다고 하여 북궐(北闕)로도 불리었다. 임진왜란 때 전소된 후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다가 고종 때 흥선 대원군에 의해 중건되어 잠시 궁궐로 사용되었다[1865(고종 2)~1868(고종 5)].
- **경복궁에서 '경복'의 유래: 『서경』 주아(周雅)에 '이미 술에 취하고 이미 덕에 배부르니 군자는 만년토록 '큰 복'을 누리리'하는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 ⑤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한 궁궐은 창덕궁(昌德宮)이다(1405, 태종 5). 창덕궁은 경복궁 동쪽 향교동에 새로 지은 궁궐로, 돈화문이 정문이고 인정전이 정전(正殿)***이다. 창덕궁은 조선의 역대 왕들이 가장 많이 머문 궁궐이기도 하다. 임진왜란 때 다른 궁과 더불어 잿더미로 변하였으나 광해군 원년(1609)에 인정전 등 주요 전각이 복구되었다.
- ***정전(正殿): 임금의 정사를 돌보던 곳(건물)

<33번 오답 해설>

시위 등 군사력을 동원한 시위 협박을 하였고 결국 일본의 무력시위에 굴복한 조선 정부가 12월에 부득이 세금 부과를 정지하고 해관을 닫았다(1878.12.19). 일명 '부산 해관 수세 사건'이라고도 하는 두모진 해관(수세) 사건은 결국 강화도 조약 체결 시 관철하지 못했던 관세 자주권을 조선 정부가 확보하려다 좌절된 사건이다.

*두모포: 조선 시대 기장현 구포(九浦)의 하나로 기장현의 대표적인 포구였으며, 해상으로 출입하는 인적·물적 교통의 요충지였다. 두모포진[두모진]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경상 좌수영 소재 부산진 관할 하에 있었으며, 수군만호(水軍萬戶)[종4품]가 전체를 관리하며 수비하였다. 그리고 두모진은 1629년(인조7년) 기장에서 부산포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1680년(숙종 6년)에 구왜관이 있던 현(부산 동구) 수정동으로 옮겨졌다(두모진 해관 위치).

31- 덕수궁

31. (가) 궁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돈덕전으로의 초대

돈덕전이 재건되어 전시관으로 개관합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 개관일: 2023년 00월 00일

◎ 소개

돈덕전은 (가) 안에 지어진 유럽풍 외관의 건물로,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행사를 열기 위해 건립되었다. 1층에는 폐하를 알현하는 폐현실, 2층에는 침실이 자리하여 각국 외교 사절의 폐현 및 연회장, 국민급 외국인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가)으로 거처를 옮긴 뒤부터 고종은 증명전을 비롯한 서구식 건축물을 지어 근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돈덕전 역시 이러한 의도가 투영된 건축물이다.

- ①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 ②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이라고 불렸다.
- ③ 일제에 의해 창경원으로 격하되기도 하였다.
- ④ 정도전이 궁궐과 주요 전각의 명칭을 정하였다.
- ⑤ 태종이 도읍을 한양으로 다시 옮기며 건립하였다.

정답> ①

'돈덕전으로의 초대'라는 제목 아래 돈덕전에 대한 소개로 '돈덕전은 (가) 안에 지어진 유럽풍 외관의 건물로,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행사를 열기 위해 건립되었다(1902~1903)'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1층에는 폐하를 알현하는 폐현실, 2층에는 침실이 자리하여 각국 외교 사절의 폐현 및 연회장, 국민급 외국인의 숙소로 사용되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가)으로 거처를 옮긴 뒤부터 고종은 증명전을 비롯한 서구식 건축물을 지어 근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돈덕전 역시 이러한 의도가 투영된 건축물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덕수궁(예전 이름 경운궁*)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고종은 아관 파천 후 1년만인 1897년(고종 34) 2월에 덕수궁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1895.2.20). 돈덕전(惇德殿)은 덕수궁 석조전 뒤쪽에 있는 서양식 2층 건물로 대한 제국 외교의 중심 공간(일종의 '영빈관')이었다. '돈덕'은 '덕 있는 이를 도답게 해 어진 이를 믿는다'는 뜻이다[『서경』의 순전(舜典)에서 유래]. 약 6년의 재건을 거쳐 2023년 9월에 개관하였다.

제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된 곳은 덕수궁 석조전이다(1946.3.20~1947.5.9).

*원래 성종의 형인 월산 대군의 집이 있었던 곳이다. 임진왜란 때 선조가 한성으로 돌아온 후 거처할 궁궐이 없어 월산 대군의 집을 임시 궁궐로 삼았고, 그곳을 '정릉동 행궁'이라고 불렀다. 선조가 사망한 후 광해군이 즉위식을 하면서 '경운궁'이라는 궁호를 내렸다.

오답 해설>

② 도성 내 서쪽에 있어 서궐(西闕)이라고 불린 궁궐은 경희궁이다. 경희궁은 원래 경덕궁으로 불렸다(16020, 광해군 12). 처음 창건 때는 유사시에 왕이 본궁을 떠나 피우(避寓)하는 이궁(離宮)으로 지어졌으나 궁의 규모가 크고 여러 임금이 이 궁에서 정사를 보았기 때문에 중요시되었다. 영조 대에 궁명을 경희궁으로 고쳤다(1760, 영조 36).

32 - 정미의병

32. (가)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달의 독립운동가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 윤희순(尹熙順)



• 생몰년: 1860~1935

• 생애 및 활동

경기도 구리 출신으로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안사람 의병가'를 창작하여 여성의 의병 참여를 독려하는 데 앞장섰다.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일어난 (가) 당시 30여 명의 여성으로 의병대를 조직하여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일제에 나라를 뺏긴 이후에는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 인재 양성과 무장 투쟁을 이어 나갔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 ① 최익현이 태인에서 고향하였다.
- ②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 해산하였다.
- ③ 민중식이 이끄는 부대가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 ④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다.
- ⑤ 의병 부대가 연합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답 > ⑤

'최초의 여성 의병 지도자 윤희순(尹熙順)'이라는 제목 아래 생몰년(1860~1935)과 생애 및 활동이 나와 있다. '경기도 구리 출신으로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안사람 의병가'를 창작하여 여성의 의병 참여를 독려하는 데 앞장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 일어난 (가) 당시 30여 명의 여성으로 의병대를 조직하여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일제에 나라를 뺏긴 이후에는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 인재 양성과 무장 투쟁을 이어 나갔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 의병'은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1907.7.20)와 군대 해산(1907.8.1)에 반발하여 일어난 정미의병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07년이 정미년).

정미의병은 1907년 12월 경기도 양주에 모여 13도 창의군을 조직하였다(1907.12.6). 이때 총병력은 1만여 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해산된 군인 3,000명이 포함되었다(전 병력을 24개 진으로 하는 12도 창의대 진소로 편성). 그리고 이듬해 1월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300명의 선발대가 서울 부근, 즉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했다가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아 후퇴).

오답 해설 >

- ① 면암 최익현(1833~1906)이 전북 태인에서 고향한 것은 1906년 6월의 일이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 강요에 분격하여 일어난 을사의병 중 하나이다(1905~1906).
- ②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 해산한 의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일어난 을미의병이다(1895~1896). 존왕양이(尊王攘夷), 복수보형(復讐保形) 등의 명분을 내세웠으며 의암 유인석(1842~1915), 습재 이소응(1852~1930) 등의 유생들이 주도하였다.
- ③ 민중식(1861~1917)이 이끄는 의병 부대가 홍주성(지금의 충남 홍성군 위치)을 점령한 것은 1906년 5월의 일이다. 을사의병 중 하나이다(1905~1906).
- ④ 일본(조선 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한 의병은 돈현 임병찬(1851~1916)이 고종의 밀지를 받아 조직한 독립 의군부이다(1912.9~1913.5). 복벽주의(復辟主義)*를 표방하였다.

*복벽주의(復辟主義): '복벽'이란 물러났던 임금을 다시 왕위에 올리는 것을 뜻하는 바 대한 제국의 군주정 회복을 목표로 한 운동이나 사상을 가리킨다.

33 - 190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

33. ㉠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 ① 학도 지원병을 독려하는 지식인
- ② 금난전권 폐지에 반대하는 시전 상인
- ③ 근우회가 주최하는 강연에 참여하는 여성
- ④ 두모포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일본 군인
- ⑤ 근대 학문을 가르치는 한성 사범 학교 교사

정답 > ⑤

'이것은 경인선 철도의 노선 계획도입니다. 경인선은 미국인 모스로부터 부설권을 사들인 일본에 의해 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철도로 개통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완공 후 서대문 정거장에서 철도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이후 경부선, 경의선 철도가 차례로 개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토지가 철도 부지로 수용되고 농민들이 공사에 강제로 동원되면서 많은 저항이 있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서울 [한성] 서대문 정거장에서 경인선 철도 개통식이 열린 것은 1900년 11월의 일이다(1900.11.12)[노량진(서울)~제물포(인천)](이전의 1899년 9월 개통설은 일본측의 잘못된 주장으로 철회함. 당시 한강 철교 미준공으로 미완공 상태). 그리고 1905년 5월에는 서울 남대문 정거장(지금의 서울역)에서 경부선 철도가 두 번째로, 1906년 4월에는 경의선이 세 번째로 개통되었다. 참고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철도가 아닌) '전차'가 개통된 것은 1899년 5월의 일이다.

(1895년 2월의 교육입국 조서 반포를 계기로) 한성 사범 학교가 설립된 것은 고종 32년인 1895년 4월의 일이다[한성 사범 학교 관제(칙령 제 79호) 반포]. 그리고 같은 해 5월에는 한성 외국어 학교도 설립되었다. 한성 사범 학교는 이후 한일 병탄 직후인 1911년에 관립 경성 고등 보통 학교의 사범과 또는 교원 속성과로 개편되었다.

오답 해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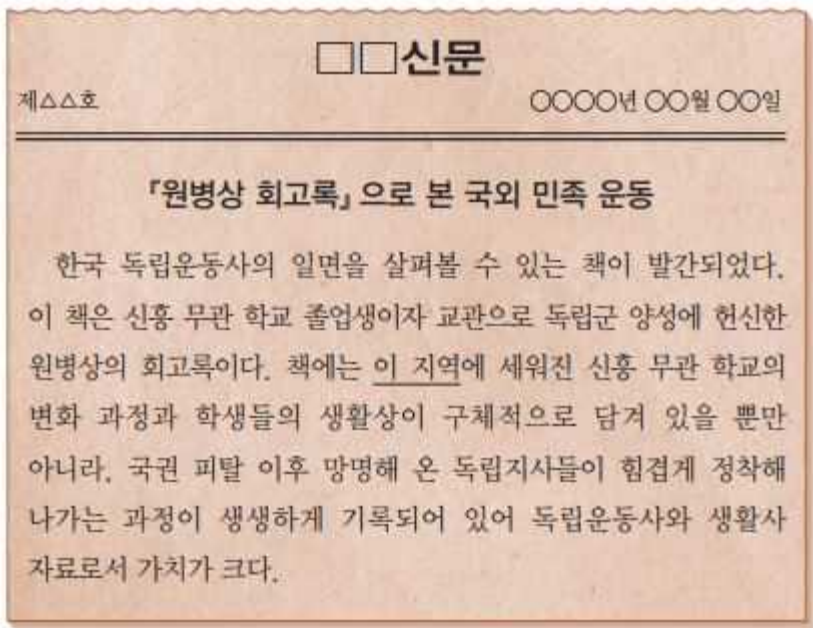
- ① 학도 지원병제가 실시된 것은 일제 강점기 말인 1943년 10월의 일이다. 이듬해인 1944년 4월부터는 징병제가 실시되었다(같은 해 8월까지 제1기 징병 검사 실시).
- ②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특권(금난전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이 단행된 것은 조선 정조 15년인 1791년의 일이다.
- ③ 근우회는 1927년 5월에 결성된 여성 운동 단체이다. 신간회의 자매단체로 전국에 지회를 두고 활동하였다(~1931).
- ④ 두모포*에서 일본 군인들이 무력시위를 벌이게 되는 '두모진 해관(수세) 사건'이 일어난 것은 고종 15년인 1878년의 일이다(1878.9~12). 상술하자면 1878년 9월 28일 두모진[두무포진] 해관이 설치되자 일본 상인과 일본 관리인이 부산항 두모진의 해관세 철폐를 요구하였는데, 동래 부사는 수세는 조선 상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일본 측이 관여할 바가 못 된다고 일축하였다. 그럼에도 일본 상인들이 계속해서 동래 부까지 난입하여 세금의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이에 격분한 동래 부민들도 대항). 그리고 이 사건이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되면서 같은 해 11월경에 일본군이 연습을 가장한 함포 발사와 상륙

<18쪽 30번 아래 추가 해설>

34 - 서간도 지역의 민족 운동

34. 밑줄 그은 '이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 운동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가 설립되었다.
- ② 권업회가 조직되어 기관지를 발행하였다.
- ③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 ④ 대조선 국민 군단이 결성되어 군사 훈련을 실시하였다.
- ⑤ 흥사단이 창립되어 교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자 하였다.

정답> ①

『원병상 회고록』으로 본 국외 민족 운동'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 독립 운동사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책은 신흥 무관 학교 졸업생이자 교관으로 독립군 양성에 헌신한 원병상의 회고록이다. 책에는 이 지역에 세워진 신흥 무관 학교의 변화 과정과 학생들의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국권 피탈 이후 망명해 온 독립지사들이 힘겹게 정착해 나가는 과정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 독립운동사와 생활사 자료로서 가치가 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신흥 무관 학교'라는 명칭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이 지역'은 서간도[남만주] 지역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19.5). 신흥 무관 학교는 서간도[남만주] 지역의 독립운동가들이 1911년 봄에 세웠던 신흥 강습소(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명칭 사용, 1913년 신흥 중학교로 개칭)를 계승한 독립군 양성 학교이다. 서간도 유하현 제3구 고산자가에 위치하였다. 참고로 원병상(1895~1973)은 신흥 중학교(당시 명칭) 본과 제3기생으로 입학하여 1916년에 졸업하고 이후 모교 교관으로 활동하며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회영, 이상룡 등의 망명 애국지사들에 의해) 한인 자치 기구인 경학사가 서간도[남만주] 삼원보에 설립된 것은 1911년 4월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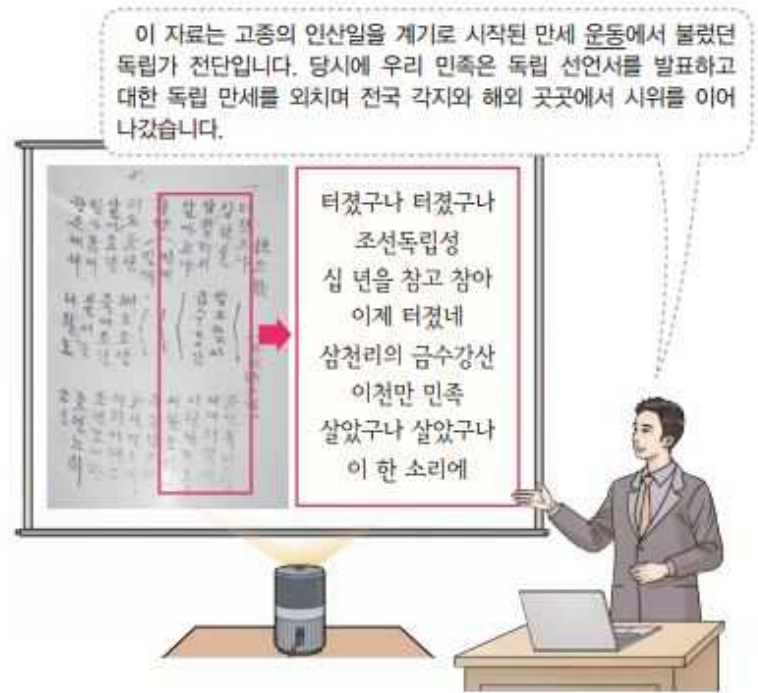
오답 해설>

- ② 러시아의 연해주 지역(블라디보스토크 신한촌)에서 항일 독립운동 단체인 권업회가 설립된 것은 1911년 2월의 일이다. 이듬해인 1912년 4월에는 기관지이자 항일 신문인 권업신문이 발행되었다.
- ③ 1919년 2월 8일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 선언서가 발표된 곳은 일본 도쿄[동경]이다. 최팔용, 서춘, 백관수 등 재일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한 (재일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이 이를 주도하였다(1918.12). 2·8 독립 선언은 3·1 운동을 촉발시킨 배경 중 하나이다.
- ④ 우성 박용만(1881~1928)의 주도로 대조선 국민 군단이 결성되어 군사 훈련을 실시한 곳은 미주 지역인 하와이다(1914.6).
- ⑤ 교민들에게 민족의식을 심어주고자 도산 안창호(1878~1938)의 주도로 흥사단이 창립된 곳 역시 미주 지역인 샌프란시스코이다(1913.5).

35 - 3·1 운동

35. 밑줄 그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되었다.
- ② 천도교 소년회가 창립된 후 본격화되었다.
- ③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 ④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⑤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되었다.

정답> ③

'이 자료는 고종의 인산일을 계기로 시작된 만세 운동에서 불렀던 독립가 전단입니다. 당시에 우리 민족은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전국 각지와 해외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 나갔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독립가 '터졌구나 터졌구나/조선독립성/십 년을 참고 참아/이제 터졌네/삼천리의 금수강산/이천만 민족/살았구나 살았구나/이 한 소리에'가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난 '3·1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일제는 무단 통치 대신 이른바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조선 총독부가 아니라)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중단된 운동은 국제 보상 운동이다(1907.2~1908.7). 참고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된 것은 한일 병탄 직후인 1910년 10월 1일의 일이다.
- ② 천도교에서 천도교 소년회를 창립한 것은 1921년 5월의 일이다(1921.5.1). 처음 1919년에 '천도교청년교리강연부'를 결성하고, 1920년에 이를 '천도교청년회'로 개칭하였는데, 이를 다시 이듬해인 1921년에 청년회 산하의 소년부를 천도교 소년회로 발족시킨 것이다. 천도교 소년회에서 1923년 3월에 잡지 어린이를 발간하였고, 또 같은 해 5월에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 ④ 성진회와 각 학교 독서회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산된 운동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1929.11~1930.3). 성진회는 광주 지역 학생들이 1926년 11월에 결성한 비밀 결사로, 1929년 6월 독서회 중앙부로 계승되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⑤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된 운동은 6·10 만세 운동이다(1926.6). 그리하여 6·10 만세 운동은 시위를 같이 준비했던 학생들이 주도하게 되었다.

36- 무단 통치기 일제의 정책

36. 밑줄 그은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애국반을 조직하였다.
- ② 신문지법을 제정하였다.
- ③ 조선 태형령을 시행하였다.
- ④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다.
- ⑤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을 강요하였다.

정답 > ③

왼쪽 말풍선에 '오늘 소개해 주실 자료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이 자료는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되던 시기에 조선 총독부 임시 토지 조사국이 작성한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경상북도 상주, 칠곡, 울릉도 등 총 6개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와 그 경계를 조사하여 확정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는 대답이 나와 있다. 토지 조사 사업이 실시된 것은 1910년대, 즉 '무단 통치기' 때의 일이다(1910~1918, 1912년 8월 토지 조사령 공포).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조선 태형령이 제정·공포된 것은 1912년 3월의 일이다(1912.3.18)(조선 총독부 제령 제13호)(4월 1일부터 시행)(~1920.3).

오답 해설 >

- ① 애국반이 조직되어 한국인의 생활을 통제하는 것은 1938년 7월부터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애국반은 1938년 7월 7일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이 조직되면서 각 연맹 산하에 10호 단위로 만들어졌다. 참고로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 연맹은 1940년 10월에 국민 총력 조선 연맹으로 개편되었다.
- ② 신문지법을 제정한 것은 1907년(광무 11) 7월의 일이다(1907.7.24)('광무신문지법')(이완용 내각의 제1호 법률). 우리나라 최초의 언론 관계법으로, 이 법을 통해 통감부와 친일 내각은 국내에서 발행되던 신문을 비롯한 민족 언론을 탄압하였다.
- ④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부터의 일이다(~1934). 산미 증식 계획은 일본의 쌀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 ⑤ 황국 신민 서사의 암송이 강요되기 시작한 것은 중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인 1937년 10월부터의 일이다. 아동용과 성인용 두 종류가 있었다.

37- 대종교

37. (가)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하였다.
- ② 한용운 등이 사찰령 폐지를 주장하였다.
- ③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펼쳤다.
- ④ 김창숙의 주도로 파리 장서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⑤ 무장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중광단을 조직하였다.

정답 > ⑤

왼쪽 말풍선에 '지난 개천절을 기회로 하여 독립운동을 계획했다는 이유로 (가) 간부 7명이 동대문 경찰서에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실렸구나'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가)은/는 나철이 만주에서 단군 신앙을 기반으로 창시한 종교인데, 민족의식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도 전개하고 있네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홍암 나철(1863~1916)이 창시한 대종교를 가리킬 수 있다. 대종교는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의식을 높이려는 종교로 나철이 1909년 1월에 창시하였는데, 처음에는 명칭이 단군교였다가 이듬해인 1910년 7월 대종교로 개명하였다(민족 고유의 종교).

무장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중광단을 조직한 종교도 대종교이다. 중광단은 북간도[동만주] 지역(왕청)에서 결성되었다(1911.3). 1919년에 이르러 대한 군정회, 대한 군정부로 개편하다가 같은 해 12월에 대한 군정서[북로 군정서]로 다시 개편되었다.

오답 해설 >

- ① 개벽, 신여성 등의 잡지를 발간한 종교는 천도교이다(각 1920년 6월/1923년 9월). 동학의 제3대 교주 의암 손병희(1861~1922)가 1905년 12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이듬해 초 (일본에서) 귀국하여 교단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 ② 만해 한용운(1879~1944) 등이 (일제의 통제에 맞서) 사찰령 폐지를 주장한 종교는 불교이다(1911.6)(조선 불교 유신회).
- ③ (교조인) 박종빈(1891~1943)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과 간척 사업)을 펼친 종교는 원불교이다(1916.4)(1918~1919 간척 사업).
- ④ 심산 김창숙(1879~1962)의 주도로 파리 장서 운동을*을 전개한 종교는 유교이다(1919.4). 파리 장서 운동을 일명 '유림 독립 선언' 또는 '제1차 유림단 사건'이라고도 한다.

*파리 장서 운동: 3·1 운동 직후 137명의 유림 대표가 한국 독립 청원서를 파리 강화 회의에 보낸 일종의 독립 청원 운동이다. 심산 김창숙이 짚신으로 엮어서 상하이 임시 정부로 가져갔고, 임시 정부에서는 다시 이것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한문 원본과 같이 3천부씩이나 인쇄하여 파리 강화 회의는 물론 중국, 그리고 국내 각지에 배포하였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유림들이 체포·투옥되고 순국하였다.

38- 1920년대 국외 민족 운동의 시련

38.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점]



- ① (가) - (나) - (다)
- ② (가) - (다) - (나)
- ③ (나) - (가) - (다)
- ④ (나) - (다) - (가)
- ⑤ (다) - (가) - (나)

정답> ①

'1920년대 국외 민족 운동의 시련'이라는 제목 아래 맨왼쪽 말풍선에 '일본군이 독립군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지역의 한인을 학살한 간도 참변이 발생하였어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가). 일제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의 대패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에서 저지른 만행, 즉 간도 참변이 일어난 것은 1920년 10월의 일이다(~1921.4). 경신참변이라고도 한다.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독립군의 통합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어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나). 러시아령 자유시 [알렉세예브스크]에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 것은 1921년 6월의 일이다(1921.6.28). 간도 참변이 일어나자 소만 국경 지대인 밀산(중국 헤이룽장성 지시에 위치한 시)에 집결한 항일 독립군 부대(10개)는 대한 독립 군단(총재 서일)을 조직하고 자유시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1920.12). 하지만 1921년 6월 자유시 참변을 당하여 해산되고 말았다.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 색출을 위해 조선 총독부가 만주 군벌과 미쓰야 협정을 체결하였어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다). 미쓰야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25년 6월의 일이다(1925.6.11). 미쓰야 협정은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쓰야 미야마쓰(1880~1959)와 중국 동삼성(만주)의 군벌인 장쥘린(1873~1928) 사이에 체결된 협약으로, 만주에서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면 이를 반드시 일본 영사관에 넘길 것을 규정하였다(독립군 탄압).

이상을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나)-(다)'가 된다.

39 - 1920년대에 볼 수 있는 모습

39.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관민 공동회에서 연설하는 백정
- ②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하는 관리
- ③ 원각사에서 은세계 공연을 보는 관객
- ④ 전차 개통식에 참여하는 한성 전기 회사 직원
- ⑤ 카프(KAPF)를 형성하여 활동하는 신경향파 작가

정답> 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 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는 노래 가사가 나와 있다. 맨왼쪽 말풍선에 '이 노래가 영화 음악으로도 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라는 질문이 나와 있고, 가운데 말풍선에는 '이 영화가 처음 제작 발표된 시기의 민족적 애환을 잘 표현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라는 대답이, 맨오른쪽 말풍선에는 '나운규가 감독과 주연을 모두 맡았네'라는 대답이 차례로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와 대화는 나운규(1902~1937)가 감독하고 주연(영진 역)한 (무성)영화 아리랑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26.10). 영화 아리랑이 단성사에서 첫 상영된 것은 1926년 10월의 일이다(1926.10.1).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후 2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상영되었다. 일명 '신경향파'로 불리는 카프(KAPF,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가동맹)가 결성된 것은 1925년 8월이다(1926년 1월 준기관지인 '문예운동' 발간).

오답 해설>

- ① 관민 공동회가 개최된 것은 광무 2년(고종 35)인 1898년 10월의 일이다. 여기서 현의 6조가 결의되었다(1898.10.29).
- ②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입국 조서가 반포된 것은 1895년 2월의 일이다(1895.2.2). 이후 조선 정부는 곧바로 근대적인 학교 설립에 착수하였다.
- ③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극장인) 원각사가 세워진 것은 1908년의 일이다. 같은 해 11월에 이인직(1862~1916)의 신소설 『은세계』를 처음으로 신극화하여 상연하였다.
- ④ 서울 동대문에서 전차 개통식이 열린 것은 광무 3년(고종 36)인 1899년 5월의 일이다(전차 노선이 서대문에서 종로를 거쳐 청량리까지 이어짐). 전차의 개통은 서울의 경관과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다는 평가가 있다.

40 - 일제 강점기 말의 정책

40. 밑줄 그은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 ② 치안 유지법을 제정하였다.
- ③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였다.
- ④ 경성 제국 대학을 설립하였다.
- 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시행하였다.

정답> ⑤

'이 사진은 어느 국민학교의 수업 장면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에는 학생들도 대동아 전쟁이라는 주제로 일제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소학교가 '국민학교'라는 명칭으로 바뀐 것은 1941년 3월의 일이다(제3차 조선 교육령 일부 개정). 그리고 중일 전쟁이 발발한 것은 1937년 7월의 일이고(1937.7.7), 이를 빌미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전쟁에 집중시키기 위해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1938년 4월의 일이다(1938.4.1).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시행한 것은 1941년 3월의 일이다(1941.3.10). 1941년 2월에 조선 총독부 제령 제8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치안 유지법을 위반하여 처벌 받은 사람(사상범)들에게 적용되었는데,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예방의 목적으로 감옥에 계속해서(기간 갱신) 가둘 수 있도록 허용한 악법이다.

오답 해설>

- ①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회사령을 제정·공포한 것은 1910년 12월의 일이다. 이것은 이른바 '허가제 회사령'이며,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20년 4월에 이르러서는 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철폐[폐지]되었다(신고제[계출제]화됨). 일제 자본과 회사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역으로 폐지경한 것이다.
- ② 일제가 (사회주의자를 탄압하기 위해) 치안 유지법을 제정(·공포)한 것은 1925년 4월의 일이다(같은 해 5월에 시행).
- ③ 일제가 헌병 경찰제*를 실시한 것은 1910년대이다. 일제는 1910년대 내내 헌병 경찰을 기반으로 한 무단 통치 정책을 펼쳤다.

*헌병 경찰제: 일제는 1910년 한일 강제 병탄 직후부터 헌병 경찰제를 시행하였다(~1919년 3·1 운동이 발생할 때까지 실시, '무단 통치기'). 하지만 법령상으로 헌병 경찰제는 이미 강제 병탄 이전에 도입되었다. 1907년 10월 '한국 주차(駐劄) 헌병에 관한 건'을 통하여 한국에 주둔하는 헌병이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 업무까지 장악하도록 규정하였다. 병탄 직전에는 한국주차군 헌병사령관이 경무총감을 겸임하게 하고, 1910년 6월 29일 '통감부 경찰관서 관제'를 공포하여 헌병 조직과 경찰 조직을 완전히 통합하면서 헌병 경찰제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조선 총독부로 이어져 헌병 경찰은 일제 무단 통치의 핵심 조직이 되었다.

④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된 것은 1924년의 일이다. 이때는 중등 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제 예과를 설치한 것이고, 2년 뒤인 1926년에 본과(3년제 법문학부와 4년제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총장에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 취임하였다.

<43번 오답 해설>

오답 해설>

- 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4월의 일이다(2018.4.27).*
-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총 네 차례의 남북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가 2018년 4월 27일의 (제1차) 판문점 회담이었고, 두 번째가 2018년 5월 26일의 (갑작스런) (제2차) 판문점 회담이다. 세 번째는 2018년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 회담이다. 네 번째가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담'이다.
- ②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킨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 9월의 일이다(1985.9.20~23). 당시 남북 간 50명 규모였으며, 9월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때 예술 공연단도 (남북으로) 교환되어 공연하였다.
- ④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2년 11월의 일이다(1972.11.30). 이듬해 박정희 정부의 '6·23 선언'과 8월 8일 발생한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회담이 중단되었다.
- ⑤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남북 정상 선언에 서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10월의 일이다(2007.10.4)(제2차 남북 정상 회담, 2007.10.2~4).

41 - 조소양(삼균주의)

41. 밑줄 그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하였다.
- ②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 ③ 극동 인민 대표 대회에서 의장단으로 선출되었다.
- ④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었다.
- ⑤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으로 삼균주의를 주장하였다.

정답> ⑤

'대동단결의 선언'이라는 제목 아래 '나는 1913년 상하이 망명 후 동제사에 참여하였소. 1917년에는 대동단결 선언을 작성했다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여기에서 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밝혔는데, 이것이 공화정을 지향하는 정치사상으로 평가받고 있다오. 1930년에는 안창호 등과 함께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였소. 이후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국 강령 초안도 작성하였다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그은 '나'는 조소양(1887~1958)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호 소양, 본명 용은). 중국 상하이에서 동제사가 조직된 것은 1912년 7월이고, 역시 같은 상하이에서 신규식·신채호·조소양 등 14인의 명의로 주권 재민 사상을 담은 대동단결 선언(문)이 발표된 것은 1917년 7월의 일이다. 그리고 한국 독립당이 상하이에서 처음 창당된 것은 1930년 1월이다. 이동녕·안창호·이유필·김두봉·안공근·조완구·조소양 등이 중심이 되어 결성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국 강령이 (임시 정부 공보를 통해) 발표된 것은 1941년 11월의 일이다(조소양이 초안 작성).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이념으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강조한) 삼균주의를 주장한 인물이 바로 조소양이다.

오답 해설>

- ① (중국 상하이에서) 의열단을 위해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한 인물은 단재 신채호(1880~1936)이다(1923.1).
- ② (일제에 대항한 독립 투쟁 과정을 서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한 인물은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1920.12).

③ 극동 인민 대표 대회에서 의장단으로 선출된 인물은 몽양 여운형(1886~1947)이다(1922.1). 극동 인민 대표 대회란 1922년 1월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서 열린 코민테른 국제 대회이다(1922.1.21~2.2)(최종 회의는 레닌그라드). 1920년 제2차 코민테른 대회에서 채택된 「민족·식민지 문제에 관한 테제」에 입각하여 극동의 피압박 민족 문제를 다룬 회의로, 한국·중국·일본·몽골·자바 등지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본래 명칭은 '극동 피압박 인민 대회'였으나 일본은 피압박국이 아니라는 문제 제기에 의해 극동 인민 대표 대회로 변경되었다. 한국 대표단은 23개 단체 대표 52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대표 총수 144명의 3분의 1을 넘는 숫자였다. 그만큼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였음을 보여준다. 참석한 주요 인물은 이동휘·여운형·장건상·박헌영·임원근·김단야·김규식 등으로 그중 여운형이 대회 의장단에 선출되었다. 대회에서는 동방 혁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특히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의 결성이 유일하고 정당한 노선으로 제시되었다.

④ (을사늑약 강요의 불법성을 폭로하기 위하여)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인물은 보재 이상설(1870~1917), 일성 이준(1859~1907), 이위종(1887~?) 3인이다[호머 헬버트(1863~1949)가 사실상 제4의 특사라는 유력한 설 있음]. 헤이그 회의가 개최된 날은 1907년 6월 15일(로~10월 18일까지 개최), 3인의 특사가 헤이그에 도착한 것은 회의가 이미 시작된 직후인 6월 25일이었다. 이후 3인의 특사는 7월까지 활동하였다(7월 14일 이준 열사 순국). 고종의 헤이그 특사 파견은 결국 일제에 의한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 신협약 체결, (대한제국) 군대 해산으로 이어졌다(각 1907.7.20./1907.7.24/1907.8.1).

*1907년 4월 이준이 한성[서울]을 떠나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과 만났다. 이상설은 1년 전인 1906년 4월에 이미 대한 제국을 떠나 북간도 용정촌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리고 두 특사는 6월 중순경 시베리아 철도 편으로 당시 러시아의 페테르스부르크(지금의 상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여 주러공사 이범진의 아들 이위종과 합류하였다.

42 - 김구, 김규식의 통일 정부 수립 노력

42. 다음 편지가 작성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친애하는 메논 박사

남북 지도자 회담에 관하여 귀하와 귀 위원단에게 우리의 의견과 각서를 이미 제출한 바이어니와 우리는 가급적 우리 양인의 명의로 남에서 이에 찬동하는 제 정당의 대표 회담을 소집하여 이미 제출한 바에 제1차 보조를 하겠습니다. 이 회의에서 남쪽이 대표를 선출하면 북쪽에 연락할 인원과 방법에 대한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귀 위원단이 이에 대하여 원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직접 간접으로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으며 우리 양방의 노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공동으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심각한 경의를 표합니다.

김구, 김규식

	(가)	(나)	(다)	(라)	(마)
8·15 광복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이승만 정을 발언	좌우 합작 7원칙 발표	유엔 총회 남북한 총선거 결정	제헌 국회 구성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⑤

'친애하는 메논 박사'에게 보내는 '김구, 김규식'의 편지가 제시되어 있다. '남북 지도자 회담에 관하여 귀하와 귀 위원단에게 우리의 의견과 각서를 이미 제출한 바이어니와 우리는 가급적 우리 양인의 명의로 남에서 이에 찬동하는 제 정당의 대표 회담을 소집하여 이미 제출한 바에 제1차 보조를 하겠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회의에서 남쪽이 대표를 선출하면 북쪽에 연락할 인원과 방법에 대한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귀 위원단이 이에 대하여 원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직접 간접으로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으며 우리 양방의 노력으로 하여금 우리가 공동으로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심각한 경의를 표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일부 어색한 문장이 있지만 주어진 자료는 1948년 2월 9일 백범 김구(1876~1949)와 우사 김규식(1881~1950)이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UNTOCK)과의 면담에서 위원단 임시 의장인 메논(1897~1974)에게 제출한 '남북 지도자 회담에 관한 의견서'이다.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은 주지하듯이 제2차 유엔 총회 결정(1947.11.14)에 따라 한반도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의 공정한 감시 및 관리를 위해 파견된 유엔 산하의 임기 기구이다. 그런데 소련은 내한한 임시 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였고(1948.1.22), 그 결과 임시 위원단이 주요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한 총선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김구, 김규식의 공동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당시 두 지도자의 의견은, 미·소 양군 철군 → 남북 지도자 회담[남북 요인 요담] → 총선에 의한 통일 정부 수립).

따라서 주어진 편지가 작성된 시기는 연표에서, 유엔 총회에서 남북한 총선거가 결정(1947년 11월 14일)되고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진 '5·10 총선거' 결과 제헌 국회가 구성(1948년 5월 31일 개원)된 사이인 '(마) 시기'에 해당한다.

43 - 노태우 정부의 통일 노력

43. 다음 연설문을 발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2점]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서명된 합의서는 남과 북이 오랜 단절과 대립을 청산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 땅에,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공동 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 석 달 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과 이에 이은 이번 합의서의 서명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민족 통일을 향한 여정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 나는 올해 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합의를 이루고 밝아오는 새해와 함께 남과 북이 평화와 협력,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

- 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 ② 남북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을 최초로 성사시켰다.
- ③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7·7 선언을 발표하였다.
- ④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실천하기 위해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⑤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10·4 남북 정상 선언에 서명하였다.

정답> ③

'제5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서명된 합의서는 남과 북이 오랜 단절과 대립을 청산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 땅에, 평화의 질서를 구축하고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공동 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석 달 전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과 이에 이은 이번 합의서의 서명은 한반도의 문제 해결과 민족 통일을 향한 여정에 획기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 나는 올해 안에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합의를 이루고 밝아오는 새해와 함께 남과 북이 평화와 협력,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힘차게 열게 되기를 바랍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연설문은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 노태우 정부 시기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1991.12.13). 남북한이 유엔(UN)에 동시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이고(1991.9.18), 남북 기본 합의서의 정식 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인 '7·7 선언'이 발표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8년 7월의 일이다(1988.7.7). 선언의 정식 명칭은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 선언'으로, 흔히 '7·7 선언'으로 부르며, 북한과 중국, 소련에 대한 개방 정책을 뜻하는 6개항의 대북 정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동포의 상호 교류 및 해외 동포의 남북 자유 왕래 개방, 이산가족 생사 확인 적극 추진, 남북 교역과 문화 개방, 비군사 물자에 대한 우방국의 북한 무역 용인, 남북 간의 대결외교 종결, 북한의 대미·대일 관계 개선 협조 등의 내용이다. 이 선언을 계기로 노태우 정부는 이후 공산권과의 국교 수립 및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23쪽 40번 아래 추가 해설>

44 - 진보당 사건

44. 다음 상황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오늘 미합중국 존 포스터 델레스 국무 장관과 우리나라 변영태 외무 장관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에 맞서 나란히 싸울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 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②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 ③ 비상 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 개헌안이 통과되었다.
- ④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규정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되었다.
-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정답> ②

'오늘 미합중국 존 포스터 델레스 국무 장관과 우리나라 변영태 외무 장관 사이에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로써 양국은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에 맞서 나란히 싸울 수 있도록 상호 이해와 공동의 이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것은 1953년 10월의 일이다(1953.10.1).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으로, 이듬해인 1954년 1월에 양국의 국회에서 승인되어 비준 절차를 거친 다음 11월에 정식 발효되었다(1954.11.18).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당수, 죽산 조봉암(1898~1959)이 처형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9년 7월의 일이다(1959.7.31). 참고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은 조봉암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오답 해설>

①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이른바 '반민특위')가 설치된 것은 1948년 10월의 일이다(1948.10.23)*. 이듬해인 1949년 1월 5일 중앙청 205호실에 사무실을 차리고, 8일 친일 기업인이었던 박흥식(1903~1994)을 체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1949.8.31).

*반민특위의 활동을 주도할 조사 위원은 각 도에서 1명씩 호선된 10명의 국회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김상돈(서울), 조중현(경기), 박우경(충북), 김명동(충남), 오기열(전북), 김준연(전남), 김상덕(경북), 김효석(경남), 이종순(강원), 김경배(황해, 제주)가 조사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김상덕과 김상돈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임시 수도 부산에서)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 것은 1952년 7월의 일이다(1952.7.7). 제1차 개헌, 이른바 '발췌 개헌(안)'이다.

④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규정한 애치슨 라인이 발표된 것은 1950년 1월의 일이다(1950.1.12). 당시 미국의 국무 장관이었던 애치슨(1893~1971)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미국의 극동[태평양]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으로 연결되는 라인(이른바 '애치슨 라인')이라고 밝혔다.

⑤ 유상 매수, 유상 분배를 규정한 농지 개혁법이 제정·공포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49년 6월의 일이다(실제 시행된 것은 1950년 3월).

45 - 제7차 개헌[헌법]과 제8차 개헌[헌법]

45. (가), (나)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 | |
|-----|---|
| (가) |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
| (나) | 제39조 ①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③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재적 대통령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
제45조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 ① (가) - 6·25 전쟁 중 부산에서 공포되었다.
- ② (가) - 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추천 조항을 담고 있다.
- ③ (나) - 호헌 동지회 결성의 배경이 되었다.
- ④ (나) - 3·1 민주 구국 선언에 영향을 주었다.
- ⑤ (가), (나) - 6월 민주 항쟁 이후에 제정되었다.

정답> ②

(가)의 제39조 ①에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는 내용이, 제47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가, 제59조 ①에는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통일 주체 국민 회의'라는 기구와 대통령 임기 6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규정을 통해 주어진 '(가) 헌법'은 1972년 12월에 공포된 제7차 개헌인 이른바 '유신 헌법'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72.12.27). 이어 (나)의 제39조 ①에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가, ③에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재적 대통령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한다'가, 제45조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7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기구와 대통령 임기 7년, 중임 제한(즉 단임) 조항을 통해 주어진 '(나) 헌법'은 1980년 10월에 공포된 제8차 개헌임을 알 수 있다(1980.10.27). 제8차 개헌은 1987년 10월 공포된 제9차 개헌 때까지 시행되었으므로 사실상 전두환 정부와 함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국회 의원 1/3 추천 조항을 담고 있는 헌법은 제7차 개헌이다(제40조 2항). 즉 제40조 1항에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 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 의원을 선거한다'고 한 다음 2항에 '제1항의 국회 의원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하며~'라고 하여 교묘하게 대통령이 국회 의원 1/3을 추천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

오답 해설>

① 6·25 전쟁 중 부산에서 공포한 헌법은 1952년 7월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공포된 제1차 개헌, 이른바 '발췌 개헌(안)'이다(1952.7.7).

- ③ 호헌 동지회(護憲同志會)가 결성된 것은 제2차 개헌안이 사사오입의 논리로 억지로 통과(1954.11.29)(이른바 '사사오입 개헌 파동')된 다음날이다(1954.11.30). 사사오입 개헌 통과 당일 그에 대한 발발로 제1 야당인 민주국민당과 무소속동지회 및 무소속의원 등 60여 명이 결집하여 범야당 연합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서 '민의원위헌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야당 세력의 단일 원내 교섭 단체로 발족시킬 것을 합의하고, 다음날인 30일 명칭을 바꾸어 호헌 동지회를 구성하여 발족시켰다. 호헌 동지회는 이승만 정부가 강행한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였으며, 이후 통합야당의 창당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민주당의 창당으로 이어짐).
- ④ 3·1 민주 구국 선언이 발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6년 3월의 일이다(1976.3.1). 서울 명동 성당에서 윤보선, 김대중, 문익환, 김승훈, 함석헌, 함세웅, 안병무 등 각계 지도층 (야당) 인사들이 발표하였으며, 선언문에서 긴급 조치 철폐, 민주 인사 석방, 의회 정치 회복, 대통령 직선제 요구, 사법권 독립 등과 함께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였다. '3·1 민주 구국 선언 사건' 또는 '명동 사건'이라고도 한다.
- ⑤ 6월 민주 항쟁이 일어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7년 6월의 일이다(1987.6.10~29).

46 -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46.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①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 ② 미국과 자유 무역 협정(FTA)을 체결하였다.
- ③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 ④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회원국이 되었다.
- ⑤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정답> ④

왼쪽 말풍선에 '오늘 내린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명실상부한 금융 실명제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른쪽 말풍선에는 '정부는 금융 외환 시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 통화 기금에 유동성 조절 자금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실명제를 실시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3년 8월의 일이다(1993.8.12). 그리고 국제 통화 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1월의 일이다(1997.11.21)('IMF 구제 금융 사태')(같은 해 12월 3일에 IMF와 양해 각서 체결).

우리나라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6년 12월의 일이다(1996.12.12).

오답 해설>

- ①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7년 12월의 일이다(1977.12.22).
- ②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에 (한미) 자유 무역 협정(FTA)이 체결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7년 6월의 일이다(2007.6.30). 협정이 발효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 3월이다(2012.3.15). 참고로 이후 미국의 한미 FTA 개정·수정 요청으로 개정 협상을 거친 뒤 한미 FTA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월에 다시 발효되었다(2019.1.1).
- ③ 저유가·저금리·저달러의 3저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의 일이다(1986~1988).
- ⑤ 미국에서 들여온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한 것은 이승만 정부 시기인 1950년대의 일이다(구체적으로는 6·25 전쟁 이후인 1950년대 중후반).

47 - 노무현 정부 시기의 사실

47. 밑줄 그은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3점]



- ①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 ②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 ③ 헝가리와 상주 대표부 설치 협정을 체결하였다.
- ④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⑤ 중학교 입시 제도가 폐지되고 무시험 추천제가 실시되었다.

정답> ④

맨왼쪽의 말풍선에 '지난 3월 정부는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가운데 말풍선에는 '여성 가족부와 여성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유림의 반대도 있어 갈등이 심화될 것 같습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맨오른쪽의 말풍선에는 '그럼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반영하여 사회적 차별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이 공포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3월의 일이다(2005.3.31)(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그 직전인 2005년 3월 2일). 그리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호주제가 실제로 폐지된 것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8년 1월의 일이다(2008.1.1)(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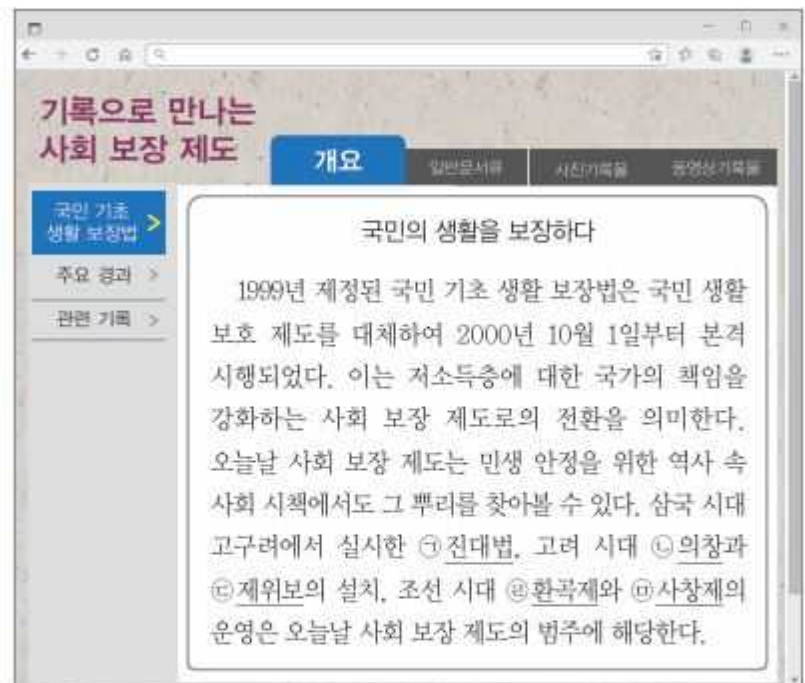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5월의 일이다(2005.5.31).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구성되어 출범한 것은 같은 해 12월이다(~2010년 6월 30일 활동 완료, 같은 해 12월 31일 해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2월 10일 제2기 위원회 출범).

오답 해설>

- ① 제23회 평창 동계 올림픽이 개최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2월의 일이다(2018.2.9~2.25). 이때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어 참가하였다.
- ② 전국 민주 노동조합 총연맹(이른바 '민주노총')이 창립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11월의 일이다(1995.11.11).
- ③ 헝가리와 상주 대표부 설치 협정을 체결한 것은 노태우 정부 시기인 1989년 8월의 일이다(1989.8.26). 이후 같은 해 10월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대한민국 상주 대표부가, 12월에는 서울에 헝가리 상주 대표부가 설치되었다(각 1989.10.25/1989.12.7).
- ⑤ 중학교 입시 제도가 폐지되고 무시험 추천제가 실시된 것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9년 2월의 일이다(1968년 7월 발표). 우선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고, 1970년에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전주에서, 1971년에 가셔야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48 - 역사 속 사회 시책

4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 - 고국천왕이 시행하였다.
- ② ㉡ - 성종이 흑창을 확대 개편하여 설치하였다.
- ③ ㉢ -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였다.
- ④ ㉣ - 세도 정치기에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 ⑤ ㉤ - 구제도감을 두어 백성을 구호하였다.

정답> ⑤

'기록으로 만나는 사회 보장 제도'라는 제목 아래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대한 해설이 제시되어 있다.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다) 1999년 제정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은 국민 생활 보호 제도를 대체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회 보장 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늘날 사회 보장 제도는 민생 안정을 위한 역사 속 사회 시책에서도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삼국 시대 고구려에서 실시한 ㉠진대법, 고려 시대 ㉡의창과 ㉢제위보의 설치, 조선 시대 ㉣환곡제와 ㉤사창제의 운영은 오늘날 사회 보장 제도의 범주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구제도감을 임시로 두어 백성을 구호한 것은 고려 예종 4년인 1109년의 일이다. 당시 개경에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고 시체가 거리에 방치되는 사태로 번지자 구제도감을 설치하였다. 참고로 예종 원년(1106)에 설치된 동·서 제위도감, 충목왕 4년(1348)에 설치된 진제도감, 공민왕 3년(1354)에 설치된 진제색도 이와 유사한 구휼[진휼] 기관이다.

오답 해설>

- ① 을파소(?~203)를 국상으로 등용하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진대법(賑貸法)을 시행한 것은 고구려 고국천왕 16년인 194년의 일이다.
- ② 빈민 구제를 위해 흑창이 설치된 것은 고려 태조 원년인 918년의 일이다. 그리고 이후 성종이 재위 5년인 986년에 이를 확대하여 의창을 설치하였다. 의창은 평상시에 곡식을 저장하였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저장한 곡식으로 빈민을 구제하였던 구호 기관이다.
- ③ 기금을 모아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한 제위보가 운영된 것은 고려 광종 14년인 963년의 일이다(빈민 구제 및 질병 치료 기관, '구료 기관').
- ④ 환곡(還穀)이란 원래 흉년이나 춘궁기에 곡식을 빈민에게 대여하고 추수기에 이를 환수하던 진휼 제도이다. 환상(還上) 또는 환자(還子)라고도 한다. 그런데 19세기 세도 정치기에 환곡은 역으로 농민을 수탈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이른바 '환곡의 문란'). 참고로 환곡은 삼국 시대부터 실시되었는데, 고구려의 진대법, 신라의 점찰보(占察寶), 고려 태조 대의 흑창과 성종 대의 의창과 상평창이 그와 관련된 성격의 기관이다.

49 - 김대중 정부 시기의 사실

49. 다음 기사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 ① 중앙정보부가 창설되었다.
- ② 국가 인권 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③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하였다.
- ④ G20 정상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⑤ 37년 만에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되었다.

정답> ②

'제17회 FIFA 한일 월드컵 개막식이 열린다'는 제목 아래 '제17회 FIFA 한일 월드컵 개막식이 어제 저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오후 7시 25분부터 취타대 등을 앞세운 32개 참가국 입장이 끝난 뒤 진행된 개막 행사는 환영·소통·어울림·나눔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의 새 시대가 열리고 한일 양국간 우호 친선의 21세기가 열리기를 기원하는 대통령의 개막 선언으로 화려하게 마무리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제17회 한일 월드컵이 개최된 것은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2년 5월의 일이다(2002.5.31~6.30).

국가 인권 위원회가 출범한 것 역시 김대중 정부 시기인 2001년 11월의 일이며(2001.11.25).

오답 해설>

- ① 중앙정보부가 창설된 것은 5·16 군사 쿠데타 직후인 1961년 5월 20일의 일이다. 중앙정보부법이 제정된 것은 20여일 후인 6월 10일이고,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직할에서 내각 직할로 변경된 것은 1963년 3월이다(1963.3.22).
- ③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한 것은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1월의 일이다(1995.1.1). 당시 우리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76개 회원국이 가입하였고, 그해 말까지 36개국도 더 가입하였다.
- ④ G20 정상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0년 11월의 일이다(2010.11.11~12).
- ⑤ 37년 만에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된 것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2년 1월의 일이다. 정확하게는 1982년 1월 5일 24시를 기하여 야간 통행금지가 전국적으로 해제되었다.

50 - 대구와 광주에서 있었던 사실

50. (가), (나)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 <보기>
- ㄱ. (가) - 김광제 등을 중심으로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되었다.
 - ㄴ. (가) - YH 무역 노동자들이 폐업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였다.
 - ㄷ. (나) -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민족 운동이 일어났다.
 - ㄹ. (나) -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한 김주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달빛 동맹의 두 도시, 화합과 협력의 새 장을 열다'는 제목 아래 '달구별 (가)의 2·28 민주 운동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은 228번 버스가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빛고을 (나)에서 5월 18일부터 운행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공유하는 달구별과 빛고을 두 도시가 열거할 화합과 협력의 새로운 장이 주목됩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2·28 민주 운동이 달구별 대구광역시에서 일어난 것은 1960년 2월의 일이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 장면의 대구 유세가 있는 날 정부가 유세장에 학생들이 가지 못하도록 2월 28일에도 등교할 것을 대구 시내 고등학교에 지시하자 이에 분노한 학생들이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다. 이날의 시위는 3·15 의거 등 이후 전개된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위의 역사적 의의가 인정되어 2018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5·18 민주화 운동이 빛고을 광주광역시에서 일어난 것은 1980년 5월의 일이다(1980.5.18-27).

- ㄱ. 김광제(1866~1920), 서상돈(1850~1913) 등을 중심으로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된 지역은 대구이다(1907.2~1908.7). 대한매일신보 뿐 아니라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 당시 항일 언론들로부터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ㄴ.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이 폐업에 항의하며 농성을 벌인 곳은 서울의 야당[신민당] 당사였다(1979.8.9~11).
- ㄷ. 한일 학생 간의 충돌을 계기로 일어난 민족 운동은 곧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가리킨다(1929.11~1930.3). 전남 광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 ㄹ. 3·15 부정 선거를 규탄한 김주열(1943~1960)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경남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이다(1960.4.11). 김주열은 1960년 3월 15일 부정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최루탄을 눈에 맞고 사망하였다. 4·19 혁명이 일어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보기>에서 옳은 사실은 'ㄱ과 ㄷ'이다.

- 이 상 -